



북미주 이화동창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EWHA WUAANA

www.ewhaian.org

E-mail: heckim38@hanmail.net

Phone: 702-233-2441

■ 발행인: 이희련 ■ 편집인: 구광자

2010년 7월

동창은 이화가 배출한 보배, 우리의 생동력은 이화의 보람

Ewha 2010 Celebrating One Ewha

North America Conference

October 24~27, 2010

Monte Carlo Resort and Casino

Las Vegas, Nevada

*Welcome to
Las Vegas*



COVER BY ANDREW KIM, M.D.



친애하는 북미주 이화여대 동창님들께



이 희 련 (의학 63)
북미주 이화 동창 회장

친애하는 북미주 이화여대 동창님들께

화창한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계 제일의 유흥도시 Las Vegas에서 개최되는 뜻 깊은 동창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열성적인 Las Vegas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하는 10월의 잔치에 많은 동문들께서 참석하시어 좋은 시간 갖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무능한 제가 회장직을 맡아 본연의 임무를 수행함에 많은 부족함이 있음을 개탄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명하신 우리 동문들의 너그러우신 아량과 협조로 잘 이어가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유명한 Hoover Dam과 근교의 Red Rock Canyon관광 그리고 회의 후 있을 Bryce canyon Tour도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의 여행이 될 것입니다. 눈부신 새로운 Las Vegas의 발전상은 여러분을 환상의 세계로 모실 것입니다. 최신의 웅장하고도 화려한 'City Center'를 위시해서 Hotel Palazzo, Hotel Wynn, 그리고 Hotel Encore 등등은 세계 어느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명물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show는 하나만 보겠다는 분들에게는 서슴치 않고 Hotel Bellagio의 "O" show를 꼭 관람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바와 같이 금년은 우리 동창회가 획기적인 전환점에 서있는 해입니다. '단일 회장' 으로서는 첫 해를 맞는 아주 중대하고 역사에 기리 남을 원점이라고 생각 됩니다. 여러가지 우리만의 특수 상황으로 들어섰던 동창회를 하나로 이어가도록 이끌어 주신 전 회장단 이미옥, 김광자 공동회장님과 현명하신 여러 동문들께 머리숙여 아낌없는 찬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10월에 Las Vegas 총회에서 반갑게 만나뵙기를 기원 하면서 댁내 두루 편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동창은 이화가 배출한 보배
우리의 생동력은 이화의 보람



「북미주 이화동창」 발간에 즈음하여

싱그러운 여름빛이 가득한 이화 교정은 열정적으로 배움의 의지를 다지는 학생들이 있어 그 아름다움이 배가 되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북미주 지회 동창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해 덴버에서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지지에 큰 감동을 받고 돌아온 지도 벌써 반년이 흘렀습니다. 먼 곳에 계심에도 늘 모교에 사랑과 후원을 보내 주시니 얼마나 든든하고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김순영 이화 총동창회장님을 중심으로 북미주 지회 동창회가 하나가 된 역사를 이루게 되니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감격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 화합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로 이화는 창립 124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24년 이화의 역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진리의 등대였으며, 여성의 인간화를 위한 헌신의 기록이었습니다. 이화는 인습과 속박에 억눌려 있던 이 땅의 여성들을 당당한 인격체로 육성하여 하나님 역사의 소명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화는 역사의 매 고비마다 개혁과 도전 정신으로 대응함으로써 한 단계씩 도약하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전통을 계승해온 이화는 오늘날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존공영을 지향하는 학문의 요람이자 범 학문 분야를 포괄하는 연구 및 교육 체제를 갖춘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여자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이화는 124년 동안 축적해온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세계적인 여성 리더를 양성하는 학문공동체로서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저는 4년 전 ‘이니셔티브 이화’의 비전을 선언하고, 이화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대학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한 ‘글로벌 이화 2010’ 프로젝트를 시행, 2007년 5월 ‘이화 인 베이징’을 시작으로 121개 대학(2010. 5. 현재)을 아우르는 21개 해외 거점을 완료했

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신입생들이 해외교육의 기회를 얻고 있으며, ‘외국으로 가는 교환학생 비율’에서 2년 연속 국내 1위를 차지하는 등 국제화 부문에서도 이니셔티브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화학술원을 설립하여 이화가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학문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한 세계적인 석학들을 지속적으로 초빙하여 학문공동체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올해 마침내 연구비 수주 1000억원을 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는 학문의 수월성에서 세계 명문 대학과 경쟁하고 능가하겠다는 이화의 비전입니다. 올해 조선일보와 영국 QS에서 평가하는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 전국 종합대학 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화는 이같은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국가와 인류 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또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 지역에 설립될 파주 캠퍼스가 바로 그 것입니다. 파주 캠퍼스는 교육, 연구, 산학 협력, 국제 협력을 통해 이화인들이 다문화적 소양을 기르며 세계로 웅비하는 글로벌 캠퍼스가 될 것이며 세계 마지막 분단의 현장에서 이념과 가치의 갈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평화 캠퍼스가 될 것입니다.

이화가 꿈꾸는 미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또한 세계 여성 지식 공동체의 구심점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상생의 세상, 생명의 문화, 인류 평화의 길을 이끌어 가는 시대의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화의 비전과 포부에 북미주 지회 동창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따스한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배 용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이 미 옥 (국문 68)
공동이사장

Ewha 2010

사랑하는 북미주 이화여대 동창님 여러분께



김 광 자 (불문 66)
공동이사장

2009년 11월 Denver지회의 모든 이화동창들이 한 마음이 되어 준비한 'One Vision, One Ewha' 통합동창회를 북미주 동창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화인답게 이루었습니다. 동창회 통합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모든 동창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2010 'Celebrating One Ewha' 북미주 동창모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이희련 회장님과 Las Vegas지회 준비위원님들께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돌이켜보면 2009년 1월 20일 6명의 통합대책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역사적인 사명감으로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동창회가 2008년 11월에 각각 채택한 통합의 결의안을 받들어 서로 최선을 다하여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고 북미주동창들에 의한, 북미주동창들의, 그리고 북미주 동창들을 위한 동창회를 이루고,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우리 통합대책위원들은 우선 두 동창회의 과거 활동사항과 회칙들을 검토하였는데 활동 양상은 비슷하였고 회칙은 더욱 흡사하였습니다. 특히 영어 이름이나 이사회의 조직은 똑 같았습니다. 재미있던 점은 두 회칙이 당연직이사나 선출이사로 이사진을 구성한다는 동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북미주 지회연합회는 당연직이사로만, 북미주 총동창회는 선출이사로만 각각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단체가 통합하며 양측 이사진을 동시에 영입하면 두 회칙들에 의거한 이사진이 구성될 뿐더러 통합동창회의 이사회 진용이 그만큼 강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회의에서는 대동소이한 본연의 회칙 조항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통합에 필요한 4 가지 사항들을 의

논, 채택하여 Denver총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총회에서 그 중 다음의 3 가지 조항들을 인준 받았습니다: 1.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2. 북미주 지회 연합회의 당연직이사와 북미주 총동창회의 선출이사를 동시에 영입하고 동창회 조직과 활동에 중추가 되는 이사회의 진용을 더욱더 강화한다; 3. 사무총장을 상설하여 지속성 있는 동창회를 운영한다. 그리고 우리는 인준한 회칙을 존중하고 실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통합총회에 이어 7명으로 구성된 Task Force Team (TFT-이희련, 이미옥, 이정형, 최성남, 이정은, 한영숙, 김광자)이 결성되었으며, 그들은 지난 4월 5 - 7일 2박 3일 동안 Las Vegas에서 함께 모여 현존하는 우리의 회칙을 재검토, 토의한 후 이를 오는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희련 회장께 이 회의록을 총회 60일 전에 모든 이사님들께 발송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사회는 10월24일 오후 2-4시에 열립니다. 이사회비 납부 마감일은 8월 20일이며, 이사회에서의 투표권은 이사회에 참석하신 이사님들께 서만 갖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사랑과 상호배려와 이해, 융합으로 서로의 차이점을 좁혀 가며 모교 총동창회와 한 우산 안에서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미주 동창회 역사의 새 페이지를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CONTENTS

- 2 이회련 회장 인사말
- 3 이배용 총장 인사말
- 4 공동 이사장 인사말
- 5 목차
임원이사회 /총회Agenda
- 6 새 총장 김선옥 교수 소개
의대 동문회 발족(이학혜 회장)
국제재단
- 7 Celebrating One Ewha
- 8 임원명단
- 9 자랑스러운 이화인(한현숙)
북미주 지회장 명단
- 10 각 부서 소식
- 11 장학사업
장학생 조효정 / 감사의 글 - 김주영장학생
Steve Kang 장학재단
- 12 전시회 소개 - Art 세계로의 초대
- 13 동창기고
연꽃처럼 사라지다 - 임정아
Dear 이회련 선배님 - 이윤경
- 14 동창기고
참새도 집이 있다 - 정선진 / 우리 한국인과 한국학교- 이문희
- 15 동창기고
남은 하루 - 임경자 / 어떤 동창이 오는가 - 한수강
- 16 Ewha 2009 덴버 총회보고 - 이미옥 회장
- 17-19 Ewha 2009 덴버 총회 사진앨범
- 20 이배용 총장 수상 - 이동우
- 21-27 지회소식
- 27 동창기고
어느 선교사의 하루 / 골프의 여로 - 정순혁
통합의기쁨 - 윤영신
- 28 동문 탐방
만나보고 싶은 동문 - 김학숙 동문
- 29 동창기고
늦깎이 - 김아자
- 30 동창기고
병상을 지키며 - 강행자
- 31 사위기고
'에덴동산의 유적을 찾아서' 강화영(김명자 동창 부군)
- 32 안내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김정화 / 관광안내
광고 - 한국 전래 동화 김동월책
- 33-35 광고
대장금 인생 / 스탠포드 썸머캠프 / 김일련 부동산
- 36 2010 Ewha 참가 신청서 와 스케줄

Ewha 2010

임원이사회 Agenda

October 24th (Sunday) 2:00~4:00 p.m.

개회선언

이사 소개

전 회의록 낭독

사업 보고

편집/출판부- '북미주 이화동창' 매거진 발간

회원부-명단 Update

과주캠퍼스 모금

Task Force Team (TFT) 회칙 수정안 제출: 토의, 가결
결산 및 예산안 심의

2010 결산 보고

2011 예산안 심의

재정관리위원회 보고

공천 위원회 보고

2013 총회장소 인준, 발표

임원 소개 및 이사 선출

신임회장/ 수석부회장/ 제2부회장 소개

추가 이사 선출

2011 총회 및 사업계획 발표

새 안건 및 공지사항

폐회

**각 분과위원장들은 사업 보고, 사업 계획, 예산 책정
등을 박혜경 준비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십시오.

총회 Agenda

October 25th (Monday) 10:00~11:30 a.m.

총회 개회선언

회장 환영사

김순영 총동창 회장 축하

공동 이사장 인사

전 회의록 낭독

사업보고: 각 임원 활동보고

편집/출판부- '북미주 이화동창' 매거진 발간

회원부- 명단 Update

모금부- 과주캠퍼스 모금

친교부, 홍보부, 장학부, 교육부, 미술부,

문예부, 연예부, 커리어 서비스부, 사회봉사부,

여행부, 예배부, 등산부, 골프부, 합창부

결산 및 예산 보고

결산, 예산 보고

재정관리위원회 보고

회칙 수정안 보고, 인준

2013 총회장소 발표 및 인준

임원, 이사 소개

신임 회장/ 수석 부회장/ 제2 부회장/새 이사진 인준

감사패 수여

전임회장

자랑스러운 이화인

신임 회장 인사

2011 총회 및 사업계획 발표

기타

폐회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이화여대의 도약을 이끌겠다.**

김 선 옥
이화여대 차기 총장

학교법인 이화학당(이사장 윤후정)은 5월 27일(목) 오전 이사회를 열고 김선옥 교수(58세, 법학 전공 75년 졸)를 본교 제14대 총장으로 선출했다. 제14대 총장의 임기는 2010년 8월 1일부터 4년간이다.

본교 법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김 교수는 독일 콘스탄츠 대학에서 행정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95년 모교에 교수로 부임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시다.

본교 한국어성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장관급인 대한민국 법제처 법제처장,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 한국전더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신다.

김 교수는 “여성 법학자, 대학행정가로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이화여대의 도약을 이끌겠다”고 소감을 밝히셨다. 그는 “연구 특성화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학문 간 융합 연구 역시 장려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또 “교양교육을 강화하고 단과대학과 부설기관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생산성 높은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하셨다.



**미주 의대 동창회
발족을 알립니다.**

이 학 해 (의대 60)
회장

작년 Denver에서 열린 북미주 동창회때 미주 의대 동창회가 발족했습니다. 목적은 동문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또 세계 엘리트 의과 대학으로 발전한 모교 의대를 더욱 빛내자는데 있습니다. 금년 중요사업은 정문자(의대 66) 동문이 만든 미주 의대 동문 주소록 (2004년 판)을 update하는 것과 조용옥(의대 59) 동문이 1995년에 국제재단에 설립한 “의대 연구기금” 적립금을 대폭 늘리는 것입니다. 주소록 Update는 일단 끝나, 지난 4월에 모금편지 300여 통을 발송했고, 이미 많은 동문들이 적극 호응해 왔습니다. 이번 Las Vegas에서 열리는 북미주 이화여대 동창회 회장이 이희련(의대 63) 동문입니다. 많은 의대동문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의대 동창회 임원은 부회장 조용옥(의대 59), 서기 김정진(의대 72), 총무 장명주(의대 77), 재무 박영미(의대 96)입니다. 문의사항은 회장 이학해: (901) 754-5092, hhrhee@yahoo.com 로 하여 주십시오.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에 대하여>

Q. 국제재단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국제재단은 이화를 돕기 위하여 미국인들이 1947년 미 연방정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한 <Ewha Womans University Cooperating Board in North America> 와 김활란 박사님(당시 이화학당 이사장)을 중심으로 1967년 설립된 <재미 이화10년발전사업후원회>가 합병하여 1970년 발족되었습니다.

Q. 국제재단은 무슨 일을 하지요?

지난 40여년간 국제재단은 크고 작은 이화의 사업을 위해 모금과 후원을 해왔고, 각종 연구비, 도서비 및 장학금을 지급해왔습니다. 2009년도 회계년도에 총 \$497,215.26의 기금을 모금하였고(재단이 가진 39%, 동창 44%, 비동창등 일반의 후원이 36%), 동년도에 이화대학교로 지원한 후원금은 총 \$509,024.43였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 이화대학교에 전달된 후원금에는 각별한 기금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2008년 미국을 강타한 경제적 난국으로 인해 세계 시장의 미래를 내다 보기 어려워지자, 11월 씨애틀에서 열린 재단이사회에서는 미래를 위해 각 개별 장학금의 지급을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재단의 이사진이 만일의 경우를 위하여 모아놓은 예비기금에서 \$50,000과, Mr. Mark Gaston 이사의 자발적인 기금 출연으로 \$50,000, 포함 \$100,000의 기금을 <국제재단장학금>이라는 일반적인 명칭 아래 이화대학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비기금의 출연금은 재단이사진이 별도로 총당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제재단에는 한국의 이화대학을 지원하는 기금 이외에도, 미국에서 수학하는 동창과 이화 국제학기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한인 2세를 지원하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 두 장학금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장학금 신청서, 성적증명서, 추천서, 자기소개서(Personal Essay) 등을 국제재단 사무실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Q. 다른 대학들도 재단이 있나요?

국제재단의 활동은 일찌기 동창 뿐 아니라 동창의 가족, 비동창인 미국인 및 캐나다인들에게 이화 후원의 길을 열어놓아, 다른 많은 대학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화에 눈 뜬 한국의 명문 대학들도 미국에 재단을 설립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몇몇 대학들

은 근자에 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지금도 국제재단 사무실에는 재단을 설립하고 싶어하는 한국의 타대학 관계자와 동창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화 국제재단의 설립과 역사가 매우 독보적이라면서, 이화의 미국인/캐나다인 친구들과 북미주에 사는 동창과 가족이 그 이른 시기부터 한국의 이화대학을 후원하는 활동을 지속해왔다는 데에 찬사를 보냅니다.

Q.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현재 국제재단에는 개인이 설립한 100여 개의 장학기금과 북미주 27개 동창지회에서 설립한 각 지회별 장학기금, 해외동창기금, 의과대학기금, 약학대학기금 등 다양한 기금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제재단은 501(c)(3) 인가를 받아 Internal Revenue Service의 법규를 준수하며 엄격히 기부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후원금은 전액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지난 4월에는 창립 40주년을 맞아 재단을 통하여 이화대학을 후원하여준 동창들을 비롯한 많은 후원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앞으로 새로운 40년을 바라보는 눈으로 헬렌김소사이어티를 창설하였습니다. 헬렌김소사이어티는 10만불 이상의 장학기금을 설립하거나 약정하는 헬렌김 리더십 소사이어티(Helen Kim Leadership Society)와 유증을 통해 사후 기부를 약속하는 헬렌김 헤리티지 소사이어티(Helen Kim Heritage Society), 이 두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32명의 리더십 소사이어티와 8명의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멤버가 있습니다. 또한 40주년을 기념하여 40개의 새로운 장학기금 설립을 목표로, 모금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설립에 관심있는 많은 동창의 참여를 바랍니다.

· 문의 및 연락처: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wha Womans University, Inc.
475 Riverside Drive #1505, New York, NY 10115
Tel. 212.864.5759 Fax. 212.864.2552
Email: ewhafdn@aol.com Website: www.ewhafoundation.org



백찬 통합의 기쁨으로 성숙한 동창회를 키워 가자

북미주의 두 동창회는 통합을 하였다. 이화의 창립정신을 새로이 기억하며 두 동창회가 하나가 되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을 해냈다. 2008년 두 동창회는 각 연례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합할 것을 가결하였고, 2009년 Denver 총회에서 통합에 중요한 3가지 안건 (1. 이름은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로 한다. 2. 이사회는 양측의 이사진을 영입하여 구성한다. 3. 상임 사무총장을 둔다.)들을 압도적인 표결로 인준하였으며, 연례만찬에서는 통합된 동창회를 위해 총동창회장장과 총장 그리고 국제재단의 이사장, 이사들과 함께 축배를 올렸다. 무엇보다 2009년은 가난과 무지의 조선 땅에 여성교육을 위해 일생을 바쳐 온 이화의 창립자 메리 스크랜튼 (Mary Fletcher Scranton, 1832~1909) 선생의 서거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그분이 태어난 북미주에 있는 두 동창회의 통합이 더욱 의미 있고, 우리 동창 모두는 다시 한 번 스크랜튼 선생의 숭고한 정신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지금 이화에는 ‘지혜롭게 규합하라’ 고 하는 비전있는 이배용 총장과 함께 ‘국내의 지회는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그곳 동창회에서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합의하여 북미주 총회에서 의결, 총동창회에 보고하면 이곳에서도 의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시대에 맞는 방향을 제시해 준 참신한 지도자 김순영 총동창회장의 리더십도 있다. 이제는 총동창회와 세계 여러 나라에 존재하는 지역 동창회와의 관계도 전통적인 수직의식에서 글로벌 시대의 자주 민주주의식과 함께 수평으로 긴밀하게 전환되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두 개의 동창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문의하는 동창들이 많아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김환란 총장은 1970년에 어려운 이화의 재정사정을 돕고져 " Friends of Ewha " 로 구성된 이화국제재단 (E-재단) 이라는 모금 기구를 설립한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E-재단은 이화를 위하여 많은 모금을 하였고 동창들은 이 기구의 모금활동을 치하하고 감사하며 함께 참여하면서 지역총회를 개최할 때 E-재단의 이사회를 host하였다. 지역 동창회는 여러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생겼고 또 자라면서 모금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동창들의 기여도도 커져가고 있었고 E-재단에서는 Alumnae Relations Committee (ARC)라는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동창들의 참여를 고무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동창들은 모금뿐만 아니라 매년 참석하는 동창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전국적인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9 E-재단의 창립30주년 축하모임을host한Chicago동창회에서는 함께 모인 동창들과 이를 토의했고, 2000년엔 그 뜻을 전국적으로 공고하여, 각 곳에서 들어오는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2001년 5월에 시카고에서 북미주 총동창회를 창립하였다. 이 창립은 동창들의 활동을 국제재단 ARC안에서만 하라는 E-재단의 완강한 제재에 부닥

치며 혼란을 초래했다. 그러나 이 총동창회는 동창들의 인격과 자주성을 존중하고 동창들의 친목과 복지에 주력하면서 꾸준히 성장해왔다. 반면에 ARC에의 종속을 지원하고 북미주 총동창회 창립을 함께 반대하던 모교 총동창회는 그 이듬해 2002년 5월 고사리마을에서 한국 임원들과 미국에서 온 동창들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미주 지회연합회 (영어로는 북미주 총동창회와 같은 명칭: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를 창안하였고, 그해 Orlando, Florida에서 그 안을 받아들임으로서 북미주 하늘 아래 두 개의 동창회가 생기게 되었다. 이어서 모교 총동창회는 ‘해외지회는 연합회를 조직할 수 있다’ 고 회칙을 개정하여 이를 회칙 제7장, 제26조 (빨간 수첩 참조) 로 기재하고 그 외 다른 명칭은 회칙에 위배된다고 한 것이다. 가끔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일이 있다.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이해하고 역사적인 사실은 일어난 대로 보도함이 이화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지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불편한 과거를 묻어 버리고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하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겸허하게 포용하는 성숙함을 가지고 그 위에서 비약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화인들은 장하다.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두 동창회를 지혜롭게 통합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북미주지역 동창들의 상황에 맞고 북미주지역에서 통하는 관습에 맞추어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도 있다. 북미주라는 신대륙에 자유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많은 사람들이 옮겨 왔다. 때로는 이들에게 자유의지는 생명보다 더 소중하였다. 이 귀중한 자유, 그것은 그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을 이해하고 수행할 때 특권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성장한 지성인으로서 성숙한 동창회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이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상호존중 상호협조의 참 뜻을 이해하고 화합의 길로 현명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본다. 우리는 함께 합의 인준한 것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합의사항을 지혜롭게 풀어 가면서 화목하고 성숙한 동창회로 키워 가야 할 것이다. Task Force Team (TFT) 은 통합된 동창회를 위하여 중요한 회칙을 진지하게 연구하였고 TFT 회의에서 추천한 사항들은 총회 전에 공고될 것이며 동창들은 Las Vegas에 함께 모여 이를 토론하고 결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통합동창회의 회칙은 결의될 것이다. 동창회는 권력이나 이해관계와는 상관없이 동창들의 복지와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을 생각하는 동창들의 모임이다. 이제는 우리들에게 걸맞는 회칙을 가지고 동창회 조직과 network를 강화시키면서 더 많은 동창들이 함께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풍요롭게 우정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이화는 세계를 향하여 동창회는 동창들을 향하여 다가가는 통합된 동창회의 장족의 발전을 시작할 때이다.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2010 임원진 명단

직명	성명	학과/졸업년도	지회명	부서명	성명	학과/졸업년도	지회명	
회장	이희련	(의학 63)	Las Vegas	홍보부	이동우 *	(영문 57)	Washington, DC	
	이미옥	(국문 68)	Denver		권오화	(가정 61)	Chicago	
공동이사장	김광자	(불문 66)	Washington, DC		이정렬	(사생 61)	Washington, DC	
					윤용임	(의학 64)	Rifton, NY	
제1(수석)부회장	조수현	(수학 76)	Boston 2/	회원부	백신자	(영문 64)	Seattle	
제2부회장	정인순	(보교 70)	Vancouver 3/		김정희	(독문 70)	Las Vegas	
총회 준비위원장	박혜경	(화학 82)	Las Vegas	강학부	장명주 *	(의학 77)	Sioux Falls, SD	
	총무	김정희	(독문 70)		Las Vegas	이상인	(의학 57)	Orlando
	서기	오선희	(교심 88)		Las Vegas	김정순	(의학 77)	Pacific Palisades, CA
		김미희	(섬예 88)	Las Vegas				
	회계	박혜경	(화학 82)	Las Vegas	교육부	이윤경 *	(가정 67)	Scarsdale, NY
		감사	손옥윤	(사학 85)		Washington, DC	윤방순	(교육 62)
				김영희		(약학 68)	Chicago	
자문위원	조용옥 *	(의학 59)	Chicago	미술부	김홍자 *	(섬예 58입 07 졸업)	Washington, DC	
	성정순	(체육 49)	Southern California		조미리	(도예 81)	Toronto	
	김은경	(의학 57)	San Diego		이정실	(불문 86)	Washington, DC	
	이학혜	(의학 60)	Tennessee		김미희	(섬예 88)	Las Vegas	
	홍성자	(영문 64)	Washington, DC		전정옥	(섬예 97)	Washington, DC	
	최경숙	(영문 66)	Philadelphia					
공천위원	이희련 *	(의학 63)	Las Vegas	문예부	김영교 *	(영문 63)	Southern California	
	이미옥 **	(국문 68)	Denver		이영강	(국문 66)	Southern California	
	김광자 **	(불문 66)	Washington, DC		강학회	(학령전교육 72)	Northern California	
	이정은	(가정 60)	Citrus Hill, FL		임정아	(가정관리 78)	Southern California	
	이정형	(약학 63)	Seattle					
모금위원	이희련 *	(의학 63)	Las Vegas	연예/오락부	구은서 *	(간호 73)	Chicago	
	이미옥 **	(국문 68)	Denver		천규운	(사학 81)	Alaska	
	김광자 **	(불문 66)	Washington, DC		정성진	(법학 93)	Boston	
	한영숙	(영문 60)	Southern California		유지숙	(사회체육 99)	Las Vegas	
	이정은	(가정 60)	Citrus Hills, FL					
	이정형	(약학 63)	Seattle	커리어 서비스부	이순훈 *	(영문 64)	Washington, DC	
	최성남	(약학 70)	New York		윤영신	(성악 87)	Northern California	
	각 지회 회장							
재정관리위원	홍명희 *	(의학 69)	Chicago	사회봉사부	오미령 *	(식영 77)	Detroit	
	김정희	(가정 60)	Chicago		심현숙 **	(사북 62)	Minnesota	
	조효은	(교육 71)	San Diego		오금녀	(영문 49)	Minnesota	
	박혜경	(화학 82)	Las Vegas		박명순	(영문 62)	Northern California	
					황현숙	(사생 75)	Seattle	
회칙개정연구위원	이희련 *	(의학 63)	Las Vegas	여행부	방선숙 *	(영문 64)	Northern California	
	이미옥 **	(국문 68)	Denver		조한숙	(전산 89)	Arizona	
	김광자 **	(불문 66)	Washington, DC		김순자	(사북 65)	Seattle	
	한영숙	(영문 60)	Southern California	예배부	장금자 *	(간호 61)	Denver	
	이정은	(가정 60)	Citrus Hills, FL		최경숙	(영문 66)	Philadelphia	
	이정형	(약학 63)	Seattle		김치자	(신방 68)	Las Vegas	
	최성남	(약학 70)	New York					
부서명 성명 학과/졸업년도 지회명				등산부	홍성희 *	(약학 68)	Seattle	
전교 (환영)부	김소영 *	(체육 96)	Las Vegas		이정형	(약학 63)	Seattle	
	이숙현	(시청각교육 79)	Las Vegas		양명순	(생미 69)	Seattle	
	문성희	(불어교육 83)	Las Vegas					
	윤혜란	(약학 85)	Las Vegas	골프부	권영애 *	(의학 64)	Las Vegas	
	오선희	(교심 88)	Las Vegas		이정은	(가정 60)	Citrus Hill, FL	
	김기신	(무용 91)	Las Vegas	합창부	조수현 *	(수학 76)	Boston	
	박진아	(무용 95)	Las Vegas		김주경 **	(관현악 77)	Southern California	
	편집부	구광자 *	(가정 67)		Chicago	홍현정	(피아노 82)	Toronto
박혜경 **		(화학 82)	Las Vegas		정인순	(보교 70)	Vancouver	
유진순		(심리 57)	Chicago		조남선	(성악 73)	Las Vegas	
이정순		(화학 57)	Chicago					
이정형		(약학 63)	Seattle					
최경숙		(영문 66)	Philadelphia					
우옥임		(약학 66)	New York					
호진희		(가정 68)	Southern California					
				* denotes chair. ** denotes vice-chair.				
				1/ Members are listed in order of graduation year unless otherwise noted.				
				2/ 2011 annual meeting host chapter.				
				3/ 2012 annual meeting host chapter.				



한국 입양아의 대모



한(심) 현숙 (사회사업 62)

6.25전쟁 당시 동생을 등에 업은 채 걷고 또 걸어야 했던 피난 행렬 속, 길 가에 버려져 비참하게 죽어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도울 수 없음에 가슴 아파하던 12살의 한 어린 소녀가 있었다. 그 때 소녀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겠다는 작은 소망의 불씨 하나를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 이렇게 간직했던 한현숙 동창의 소망은 모교 사회사업학과에 입학하면서 첫 걸음을 걷게 되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닌 어렵고 약한 이들을 위한 삶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졸업 후 봉사를 시작한 한현숙 동창은 한국 기독교 양자회는, 기존의 입양 기관들이 고아원 시설을 통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던 그 시절 입시 위탁가정 보호시스템으로 전환시키며 입양 전까지 좀 더 안정된 환경 속에서 양육하므로 신생아의 사망률을 1%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었다. 한현숙 동창은 한국 정부 보건복지부의 아동정책 및 양자에 관한 제도적 정착과, 당시엔 관심 밖이었던 국내 입양이 국가차원에서 시책화 되기까지 주 역할을 했다. 또한 국내 최초로 미혼모 상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도 했다.

한현숙 동창은 1975년 도미, 새로운 비전을 품고 미네소타에 아동복지회 사회사업가로 근무하면서 한국 입양아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던졌다. 한국 고아들에게 입양을 통해 더 나은 미래와 행복한 삶을 만들어 주기 위해 40여 년을 쉬지 않고 걸어왔다. 1만 3천명이 넘는 아이들을 미국 미네소타의 양부모 가정에 입양시켜 그들에게 가정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었으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Korea Day Workshop을 시작하여 양부모들에게 한국 문화 역사 풍습 등을 교육하고 입양아들에겐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한국의 문화를 교육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한현숙 동창은 입양아와 생모 생부 만나기 program을 추진하여, 버려졌다는 상처를 간직하고 살아갔을지도 모를 입양아와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을 부모의 오랜 마음의 고통을 풀어내도록 입양아와 생부모 만남의 장을 열어 주었다. 이는 서로의 오해를 풀고 꿇을 수 없는 혈육의 정을 사랑으로 다시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때문에 미네소타 주 미국인들에게 한현숙 동창은 ‘한국 입양아의 대모’로 알려져 있으며 주지사의 표창으로 ‘한현숙의 날’이 지정되기도 했다. 이렇게 먼 타국에서 본인의 이름을 기억하는 날을 가진 한현숙 동창은 이화의 자랑을 넘어서 한국인의 자랑이 아닐까 싶다.

한현숙 동창은 입양아를 위해서라면 어느 것 하나라도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었다. 1996년 미국과 한국에서 관심을 모았던 입양아 성덕 바우만이 골수 암을 딛고 새 삶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가 한현숙 동창이다. 한국의 방송사를 섭외해 그의 힘든 사정을 알려 도움의 손길을 구했으며 이를 안 미국 방송사도 보도를 통해 이 일을 사회에 알렸다. 이런 한현숙 동창에게 한국에서는 대통령 표창과 국민훈장 동백장이 주어졌고, 미국 전국아동복지회에서는 1991년 ‘사회사업가 5인’에 한현숙 동창을 선정했다. 또한 미네소타 아동복지회는 은퇴한 한현숙 동창을 115년 역사상 처음으로 ‘미네소타 아동복지회 이사’로 추대했다.

한현숙 동창의 열정과 추진력은 재학시절에도 드러났다. 선거로 선출된 최초의 총학생 회장이었던 한현숙 동창은 무궁화 꽃을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으로 3.8선 지역 군인들에게 꼭 필요했던 초고속정을 구입해 주는가 하면, 모금운동을 통해 교육이 부족했던 농촌에 도서지원 등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 속에서 이화인의 역할, 이화인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왔다.

한현숙 동창은 “자신이 걸어온 길은 누군가를 위한 봉사의 삶이었다기 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 누릴 수 있었던 행복과 보람이 더 컸기에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한다. 양부모들이 정성스레 만들어 주었다는 7권에 달하는 커다란 앨범엔 그 동안 한현숙 동창이 입양을 주선했던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한 행복한 모습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 앨범 결면에 예쁜수로 새겨진 글씨, ‘HYUNSUK HAN’ S FAMILY’! 이렇게 많은 가족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수만 명의 가족을 가진 한현숙 동창의 행복함이 옆에 있는 우리에게도 전해져 오는 듯 했다.

은퇴 후에도 한 동창은 인도와 한국을 오가며 선교와 복지사업을 하느라 쉴 틈이 없다. 일흔을 넘긴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힘찬 열정과 샘물 같은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한현숙 동창은 “모든 것이 본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주신 지혜와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남은 삶도 봉사하며 살고 싶다”고 겸손히 말한다. 이런 한현숙 동창의 삶은 우리가 이화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품어야 할 비전과 역할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북미주 지회장 명단

주	지회명	지회장	전공졸업
AK	Alaska	김연순	화학 59
AZ	Arizona	조한숙	전산 89
CA	S. California	오명애	미술 74
CA	San Diego	박옥심	특교 77
CA	San Francisco	조성연	사회 90
CO	Denver	정재연	영문 68
DC	Washington DC	김홍자	섬예 07
FL	Orlando	이연숙	문리 68
GA	Atlanta	장석란	미술 68
HI	Hawaii	임정희	경영 76
IL	Chicago	구은서	간호 73
KS	Kansas	안순태	법학 90
MA	Boston	조수현	수학 76
MD	Baltimore	노선희	기약 72
MI	Detroit	오미령	식영 77
MI	E. Lansing	조미영	미술 85
MN	Minnesota	심현숙	사복 62
MO	St Louis	정홍순	성악 62
LV	Las Vegas	이희련	의학 63
NY	Buffalo	조보인	의학 64
NY	New York	유덕향	약학 71
OH	Cincinnati	김영채	영문 59
OH	Cleveland	김진경	의학 81
OR	Portland	손영의	교육 72
PA	PA Allentown	김여흠	영문 58
PA	PA NE	김혜숙	영문 68
PA	Philadelphia	강혜란	화학 72
RI	Rhode Island	이길자	의학 66
TN	Nashville	김예경	의학 75
TX	Houston	김명옥	경영 75
TX	TX Northern	김연향	교육 62
WA	Seattle	양명순	생미 69
CN	Edmonton	김정자	기독교 65
CN	Montreal	이채화	무용 76
CN	Ottawa	차정자	수학 67
CN	Toronto	조미리	도예 81
CN	Vancouver	정인순	보교 70

자랑스런 동창 추천바랍니다.

이화 동문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한 분, 전문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은 분, 그리고 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한 분들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의 업적을 회보에 소개하고 그런 자랑스런 동문들을 동창회에서 표창하고자 합니다.



골프부

부장: 권 영 애 (의학 64)

골프부는 이번 라스베가스총회에 세계적인 유명 골프장에서 26일과 27일 양일 간에 걸쳐 부부가 참여할 수 있는 골프 행사를 마련하여 총회가 동창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총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가 신청서에 기입하고 골프채를 가져오시는지의 여부도 미리 알려 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장갑과 신발은 각자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면 자세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 권영애: 814-449-9010 · youngajun@hotmail.com

미술부

부장: 김 홍 자 (섬예 58, Washington, DC 지회장)

2010 Las Vegas총회의 일환으로 아트 슬라이드 강연 (power point slide presentation)이 개최됩니다. 북미주 전국 각 37지회 미대 동창들의 작품을 slide show형식으로 소개할 본 행사는 김홍자 미술부장이 진행하고 약 150명의 북미주 이화여대 작가들이 포함 될 예정입니다.

본 강연을 통해 참여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북미주 전 동창에게 알리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없었던 동창들에게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총회에 참가하시는 모든 이화인들은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가운데 친목과 화합을 이루는 소중한 경험을 하시기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슬라이드 강연에 참여하실 미대동창 및 현 작가분들께서는 각 지회 회장 또는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에게 다음의 내용을 신속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작품사진4~8점, 작품 제목, 표현기법, 크기, 4~10줄의 작가 경력, 작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 작가 인물사진 (작업 중 모습)>>

본 행사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고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미술부원에 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자 (섬예 57입, 07출, Washington, DC 지회장)
komeliaokim@aol.com · 240-447-6097(c)
- 김미희 (섬예 88, Las Vegas 지회)
decoart14989@hanmail.net · 702-809-5730(c)
- 조미리 (도예 81, Toronto 지회장)
miri.moon@gmail.com · 416-385-7207(h)

여행부

부장: 방 선 속 (영문 64, 북가주 지회)

북미주 이화여대 여행부는 매년 열리는 연례총회를 전후해서 또는 아무 때나 동창들이 원하는 여행을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2012년 Vancouver연례총회 pre-conference trip으로 짧은 cruise 여행 (from San Francisco to Vancouver)을 구상 중이며, Arizona에서 사시는 여행부 조한숙 (전산 89, Arizona 지회장) 동창은Grand Canyon에 우리 동창들을 안내하고 싶다고 하신다. 이와 같은 여행은 이화동창 간에 우애를 두텁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 방선속 sunsookjhun@gmail.com · 650-483-8484 (c)
- 조한숙 joannecho@gmail.com · 480-710-8899 (c)

연예부

부장: 구 은 서 (간호 73, Chicago지회)

우리 연예부는 박혜경 총회 준비위원장님의 수고를 덜어 드리기 위해 각 지회에 연락하여 annual banquet에 출연할 talent show program을 수집하고 banquet program guide에 실리며, 예년보다 짜임새 있는 show를 사회,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가라오케 같은 오락 프로그램을 만들어 참석한 동창들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흥겨운 만남의 장소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각 지회장께서는 오는 9월 15일까지 귀지회의 program에 관한 내용 (show의 이름과 간단한 description, how long it takes, equipments required, etc.)을 정성진 동창께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성진 (법학 97, Boston 지회) 동창
soloshark@gmail.com · 617-230-0005 (h)

예배부

부장: 장 금 자 (간호 61, Denver 지회)

사랑하는 동창님들 주님 안에서 늘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북미주 두 동창회의 통합은 이화의 창립정신을 새로이 기억하며 그 일을 위해 북미주 각처에서 꾸준히 기도해 온 많은 동창들의 합심에서 이루어졌고 이에 다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elebrating One Ewha”의 주제로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 까지 Las Vegas에서 개최되는 이화 모임 때에는 전례대로 총회 마지막 날인 26일(수요일) 아침에 모교 총장님과 총동창회장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창회 모임 기간 동안 긴급한 기도 요청도 받고 중보기도도 나누며 또한 가능하면 조용히 기도할 장소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반가운 만남을 기다리며 우리 함께 이화모임의 모든 순서 순서와 이 모임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이화련 회장님을 비롯한 그곳 준비위원들과 모든 임원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합창부

부장: 조 수 현 (수학 76, Boston지회장)

우리 북미주 이화여대 합창부는 구성회 (성악 86, Washington, DC지회) 동창의 지휘로 오는 10월 26일 Las Vegas 연례만찬에서 우리 교가를 비롯한 아름다운 곡들을 선보이며 한복 차림으로 통합동창회의 첫 만찬을 수놓게 되었다. 특히 윤정자 (사회 64, Washington, DC지회) 동창의 장고 반주는 이날의 축제를 한층 더 빛나게 해 줄 것이다.

합창단 멤버는 합창을 사랑하는 북미주 동창들로 구성되며, 합창곡들을 연습CD로 만들어 악보와 함께 각 지회와 합창부로 연락해 주는 동창들에게 배포하여 지역적 연습을 도모할 것이다. 정식 group rehearsal은 10월 24, 25, 26일 사흘 동안 Monte Carlo Hotel에서 있을 것이며 동창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지휘자 구성회 동창은 Catholic University (in Washington, DC)에서 성악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많은 오페라에 출연하였고, 종교음악대학 교수, Washington Soloist Ensemble의 vocal coach, 워싱턴 지구총교회의 지휘자로 맹활약 중이다.

- 조수현: soohuncho.song@gmail.com
508-785-2641(h) / 508-333-1757(c)
- 구성회: sungheenorae@gmail.com · 240-888-0126(c)



회원부

차장: 김 정 희 (독문 70, Las Vegas 지회 총무)

2010년도 회원부에서는 변경된 지회장 명단을 갱신하고, 임원/분과위원 명단, 파주캠퍼스 후원자 명단, president's letter mailing list 등을 작성하였으며, 2010 '북미주 이화동창' 매거진을 받게 될 북미주 동창 주소록을 update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database를 유지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동창들을 전화나 이메일로 접촉할 때마다 수고한다는 격려와 협조에 보람을 느낍니다. 가장 기쁜 일은 많은 동창들이 동창회 주소록에 새로 등록했고 이번 10월 라스베가스 동창회 모임에 참석하시겠다는 의향을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송한 우편이 반송될 때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애로가 많습니다. 주소가 변경된 동창님들은 김정희(Connie Lee, cle2480@hanmail.net 702-341-8909 (h), 702-308-3118 (c))에게 곧 알려 주시고, 이번 매거진을 받지 못하신 분이 주위에 계시면 그분의 우편주소를 저에게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매거진을 곧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areer Services Committee

he Mission: To promote the career / life development of all Ewhaians in North America and around the world.

The Goal:

- to develop global network for alumnae
- to personalize all alumna-to-alumna connections
- to strengthen the connection of alumnae to the university and,
- to enhance the contributions of Ewhaians to the global community.

The Career Services Committee provides services and resources to all Ewhaians in

페이지 11 아래로



동창회 장학 사업

감사의 글



장 명 주 (의대 77)
장학 위원장

우리 동창회는 501(C) 3 비 영리 단체로 다양한 charitable activity를 할 수 있다. 동창회에서 합당하다고 결정한 것은 장학사업 교육사업으로 여성지도자 양성이다. 이를 위한 모금 위원장은 장명주 (의대 77) 동창으로 김정순 (의대 77) 위원장의 활발한 활동에 이어서 열심히 모금을 하고 있으며 많은 동창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납부금은 세금 공제가 된다. 이화의 후배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마련하여 매년 한 학생씩 국제대학에서 선정해 주는 우수한 학생으로 경제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며 외국유학을 처음오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연 \$3,000씩 동창회에서 수여한다. 심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조효정 후배는 윤방순(교육 62) 교수께서 근무하시는 Central Washington University에서 부군 Executive Director of International Program and Studies인 Dr. Michael Launius 교수께서 주선 해주시는 학비 전액 면제를 받고 9월 학기에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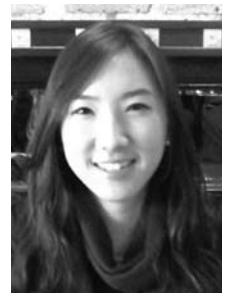
조 효 정
제4회 장학생으로 선정

김주영 후배에 이어 본교 이화여대 국제 대학원에서 선정해준 제4회 장학생은 이화여대에서 의류학과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는 4학년에 재학중인 조효정 후배다. 조효정 후배는 2010년 9월부터 Central Washington University(CWU)에서 수학하게 된다. CWU에서 윤방순 교수(정외 69)와 그 부군 Michael Launius교수께서 주선하여 등록금 면제를 받고 북미주 동창회와 국제재단의 Steve Kang Memorial Fund에서 나오는 장학금으로 학비전액을 받으며 학교를 다니게 된다. 어린시절부터 꿈꾸어 오며 이화여대를 다니면서 고민하던 유학의 길... 마침내 그 꿈을 이루게 된다.

The Steve Kang Young Artists and Scholars Fund

The Steve Kang Young Artists and Scholars Fund 장학재단에서는 2009년에 창의적이고 각 전공분야에서 탁월하며 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대학, 대학원 학생들 24명에게 \$50,000의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16명은 신규 지원자며 8명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 장학금을 수여 받았고 그중 Vermont Fine Art Residency Fellow로 유학오는 이화대학 재학생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2010년에도 \$50,000의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이며, 장학기금 모금 / 문화 행사를 2010년 8월 6일 Oakbrook Terrace, Illinois에 소재한 Drury Lane, Crystal Ball Room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사항: 김정희 (가정, 60) (Mrs. Kang. Tel: 630-572-9202)
장학 신청서: sskangfund.org에서 Download
마감 일: 매년 9월 30일



김 주 영
제3회 장학생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총동창회 선배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어중문학과 07학번에 재학중인 김주영입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총동창회, Steve Kang Memorial Scholarship 그리고 Central Washington University Tuition Waiver Scholarship의 후원을 받고 미국 워싱턴주 Ellensburg에 위치한 Central Washington University에 교환학생으로 와 있습니다. 우선 장학금으로 미국 유학비용에 큰 부담을 덜게 되어 매우 감사합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제가 대학교에 들어오기 전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활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어 실력 향상은 물론이고, 타지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것, 외국인 친구들과 서로의 문화나 사고방식을 교류는 것 등을 통해 스스로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장학금은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저로 하여금 책임감 있고 의미 있는 교환학생 생활을 하게 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온 지 어느덧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시간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결코 짧지도, 길지도 않은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좀 더 성숙해 지고,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두렵던 미국 생활에 서서히 익숙해졌고, 이제는 외국인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Central Washington University는 수업 당 학생 수가 비교적 적은 편이어서 교수님과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유로운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들던 중국어 수업에는 학생 수가 다섯 명으로, 수업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중국어 회화를 연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와 방학 때는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시카고, 뉴욕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특히, 겨울 방학 3주 동안 미국인 친구 집에서 지내면서 결혼식, 졸업식, 크리스마스 파티 등 친구 가족 행사에 참여하여, 미국인 가정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중어중문학과 경영학과를 복수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저의 어학 능력과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고, 더욱 학업에 충실해서 선배님들의 후원에 보답하는 자랑스러운 글로벌 이화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이화여대 학생들이 저와 같은 소중한 경험을 하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화의 한 가족으로서 후배들에게 늘 돌아보고 도움을 주시는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총동창회 선배님들, Steve Kang Memorial scholarship을 수여해 주신 강정희 박사님, CWU와 이화여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위해 애써주시는 정치학과 윤방순 교수님,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Office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Programs Michael Launius 박사님, the Office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Programs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페이지 10 에서 계속

North America to help with their career decision-making, job search strategy and life transition. The Career Services offers opportunities for alumna-to-alumna connections to exchange occupational information and learn from each other's experience. It will assist Ewhaians to make informed career decisions and to develop effective strategies to be successful in life and workplaces. The Committee promotes and develops professional network of alumnae to enhance personal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Planned Program Initiatives:

Career Forum: A stage for Ewhaians to share work/life experience.

Volunteer Lecturers: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in teaching in English the subjects of their professional expertise at college level. Resumes will be shared with potential schools in Korea seeking volunteer lecturers who are interested in teaching in

English.

Career advice: Call : 757-301-3301 / email : Soonhoon@gmail.com with questions of career decision-making and life transition.

At the 2010 Annual Conference, we will provide:

Resumania: Bring in your Resume and/or Bio Statement for review and comments. Or email your resume to the above address for appointment.

Personal counseling: Individual sessions will be scheduled as requested. Please call or email to the above telephone number or address to make an appointment.

The committee will continuously review and revise programs to provide services relevant to the needs and demands of the EWUANA and its members.

Committee members: Soonhoon Ahn (이순훈, 영문 64)
Youngshin Lee (윤영신, 성악 87)

페미니즘 아트와 이화인: 포스트 모던의 큰 산맥



이정실 (86 불문)
워싱턴지회 부회장, Ph.D.
미술사가, 평론가

1950년대의 할리우드 섹스 심벌 마릴린 몬로의 이미지 대신, 21세기에는 안젤리나 졸리 같은 독립적이고 공격적인 여성의 이미지가 스크린을 메우고 있다. 패체나 문학, 그리고 예술에서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는, 여성에 대해 변화된 사회 인식과 구조를 보여준다. 가부장적인 부계 중심 사회에서 차별 받고 억압받던 여성의 정치, 사회적 지위에 대해 반발하면서, 왜곡된 관념과 제도를 바로 잡아 보다 평등하고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페미니즘의 골자이다. 이 물결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 지다 보니, 미술도 예외는 아니었다. 모더니즘 아트가 서구의 백인 남성 중심의 경제, 관념 구조

속에 이루어지다 보니, 탈 중심이 요지인 포스트 모던 아트는, 여성운동과 흑인운동으로 점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페미니즘 아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60년대 미국에서, 남성 권위가 지배하는 미술계의 현실을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Miss America를 뽑는 미인대회에 대한 반대 데모를 처음 한 시기이기도 하다. 린다 노클린이라는 미술사가는 “위대한 여성미술가는 왜 존재하지 않는가” (1971)라는 글을 썼고, 다음 해에 “19세기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와 에로티시즘”이라는 학회에서, 주류인 남성 작가들이 여성을 어떻게 성적인 대상으로 표현했는가를 연구하였다. 이어서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과거의 여성 작가들을 발굴하는 일, 또는 과거의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새롭게 여성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여성의 동등한 권리와 능력을 주장하던 페미니즘 운동은, 곧이어, 이질성을 더 강조하는 쪽으로 가게 되었다. 남성우월주의에 대한 반발로 여성성을 강조하고, 여성은 남성과 다르지만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위대하다는 메시지를 강조 하였다. 이 운동의 대표적인 작가인 주디 시카고(Judy Chicago)는 “Dinner Party” (그림1)라는 대형 설치 작품을 통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999명의 여성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다. 삼각형 모양의 테이블에는 자수를 놓은 테이블보와 삼각형의 각 면마다 13명씩의 세라믹 접시로 세팅되어 있다. 이들은 고대 그리스 여신이나 시인으로부터, 이집트의 여왕, 그리고 정치적, 문화적인 공헌을 남긴 여성들을 나열하다가, 마지막에 조지아 오키프(Georgia O' Keeffe) 테이블로 마무리를 한다.

이 작품이 큰 스캔들이 되었던 이유는, 테이블에 놓인 접시가, 여성 성기와 나비 모양---자유와 부활을 상징하는 고대의 심벌---을 결합시킨 특수한 형태의 도자기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후, 열등하고 저속하게 여겨지던 여성의 성에 대한 이미지를 뒤엎고, 여성의 성을 창조적이며 적극적인 상징으로 표현하려는 노력들이 뒤따랐다. 이 70년대 페미니즘 작가들이 자신들의 선구자로 꼽는 작가는 조지아 오키프이다. 그녀의 작품들 중, 꽃을 소재로 한 “Jack-in-the-Pulpit, No. IV” (1930)이나 “Music, Pink and Blue, No. 2” (1918)(그림2)등은, 70년대 페미니즘 작가들에게 꽃으로 상징된 여성성 이미지 (Central core imagery)를 발전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녀 자신은,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이 내린 해석을 한번도 인정한 적이 없지만, 페미니즘 아트에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여성 화가임에는 분분하다.

과도하게 여성의 성에 집착하는 일부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은 얼굴을 찡그리게 할 정도의 성을 강조하는 작품들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분노가 그 극단으로까지 치달으며, 정치적으로 결집되었던 70년대에 비해, 80년대 들어서면서, 많은 페미니즘 작가들은 성의 차이는 본질적이고 생리적인 것이 아니라, 파워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미디어나 다른 문화매체를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 또는 “사회적으로 형성

되어 진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여성은 어떻게 행동하며, 꾸미며, 살아야 하는지를 교육받고, 이것이 여성들의 진정한 삶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영화로서는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한 “Mona Lisa Smile”에서 이 논의를 잘 그리고 있고, 작가로는 신디 셔먼(Cindy Sherman)등이 주로 사진작업을 통해서, 자신들을 스테리오타입된 연약하고, 남성의 도움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연출하고 있다.(그림3) 이 사회 비판적인 페미니스트 아트의 물결이 지금까지도 지배적이다.

올초에 워싱턴에서는 이 논의에 부합되는 두가지 전시가 있었다. 하나는 National Museum of Women in the Arts에서 전시되었던 “A Dream---but not Yours: Contemporary Art from Turkey”은 90년대 이후의 다원화된 경향, 즉, 페미니스트 운동과 민족주의가 혼용되는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의 경향을 보여준다. 여성이면서, 타민족으로서 미국에서 살아가는, 이중고의 여성작가들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안간힘. 특히 터키처럼 철저히 여성을 억압하는- 여성의 오르가즘을 차단하기 위해 클리토리스를 거세하고, 또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 노예화 했던 하렘이 있던 나라- 회교 문화에서의 처절한 몸부림이 느껴진다. 그들도 동일한 질문 즉 “왜 많은 여성들은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노력할까?”를 던지면서, 비디오, 사진, 페인팅의 모던 또는 포스트 모던 언어와 터키 여성의 정체성을 융합시키고 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성이나 남성의 이중구조를 여성성(femininity)과 남성성(masculinity)의 다원 구조로 재해석하는 최근의 페미니스트 경향을 보여주는 전시가, 워싱턴 코러스 하우스에서, 동창 전정옥의 기획하에 열렸었다. 남성안의 여성성, 여성 안의 남성성이 존재한다는 이론은, 최근의 게이/레즈비언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시키며, 전통적인 이원화된 성개념을 도전하고 있다. “바람직한 동화: 환상과 실제 사이”라는 제목의 전시는, 아이들의 놀이 문화 속에서부터 조작되어온 성적, 인종적 편견에 도전하고 있다. 동창 작가인 천민정은 60-70년대 한국에서 유행한 빅토리아풍의 백인 인형을 통해 한국여성들의 왜곡된 서구미인형 정체성과, 서구 자본주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북한여성들의 정체성을 대조하였다.(그림4) 이 전시에서 흑인 게이작가인 길버트 트렌트(Gilbert Trent)의 작품, 즉 신체를 임의로 바꾸는 트랜스 젠더를 암시하는 종이인형은, 다른 방식이지만, 강요되어진 고정된 성과 인종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와 페미니즘의 인연은 특별하다. 이화여대는 한국 최초로 여성학과를 개설하였고, 이화여대 박물관에서는 “또 다른 미술사, 여성성의 재현”이라는 전시가 기획되었었다. 이곳 워싱턴의 몽고메리 칼리지 미술대 교수로 재직하는 김홍자 동창회장은, 이화여대 미술대를 졸업한 워싱턴의 동문들을 모아서, 색다른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이화인으로서, 미국이라는 낯선 곳에 와서, 인종적으로, 또 성별로도, 불리한 환경가운데서도, 끝까지 이화의 꽃을 피우는 의지와 끈기, 그리고 그 생명력을 자축해 보자는 것이다. 그의 작품 “필레니움과의 대화” (그림5)는 자전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다. 즉 한복을 입은 자그마한 여인이, 서구식 헤어스타일을 하고, 진보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내부에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전진하는 자세로, 포기하지 않고 가는 이민 일세대의 유연한 여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페미니즘 아트의 주요한 화두인 아이덴티티와 바다의 주제가 담겨있는 작품으로, 올해 워싱턴 코러스 하우스에서 열릴 전시에서도, 많은 이화의 미술인들이 다루게 될 주제이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 이후로도, 열기가 식을 줄 모르는 페미니즘 아트가 단순히 남성 중심의 주류의 가장자리에서 그를 비판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류에 새로운 방향과 반성을 제시해 주며, 서로 화합하며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아직도 보수적인 대학에서는 “페미니즘아트”를 커리큘럼에 넣지 않고 있지만, 또 잘해야 본전이라는 “여류”라는 고정관념도 머물고 있지만, 페미니즘아트라는 거대한 산맥은 인류사를 새로 쓰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행보의 선두에는 이화라는 큰 강이 흐르고 있다.



연꽃 처럼 사라지다



임정아 (가정관리 78)
미국명 이정아
남가주 지회

는 이전에 비해 훨씬 덜하였다.

아이가 어릴 땐 가끔 나가서 워킹 트레일을 걷기도 하고 라티노 행사들이 파는 치즈 바른 옥수수를 사먹기도 하였다. 요즘엔 차를 타고 무심히 지나칠 뿐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엔 발로 짚는 오리배를 탈 수도 있는데 늘 타 봐야지 하면서 오늘까지 못탄 채이다. 서울 사람이 창경원 못 가본 꼴이고 뉴욕커가 자유의 여신상 못 오른 꼴이다. 요즘엔 페달보트 한 시간 빌리는 값이 10불이 되었다. 5불일 때부터 타봐야지 했는데 8불이 되었다가 10불이 되도록 타지 못 하였다. 그 사이 무려 20여 년이 지났으니 나도 참 어지간하다. 이제는 그곳에서 ‘페달 보트 타기’를 죽기 전에 해야할 버킷 리

동네 어귀 에코 파크(Echo Park)의 호수는 여름철 연꽃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유명하다. 7월 초부터 9월까지 호수의 반이 넘게 연꽃이 가득 핀 것이 장관이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연꽃 군락지였다. 무슨 이유인지 작년과 올해엔 단 한 송이의 연꽃도 볼 수가 없다. 한가롭게 노니는 오리도 더 늘었고 낚싯대를 드리운 이들이 제법 큰 물고기도 잡건만 연꽃의 실종이 의아하다. 로터스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되었다. 1972년부터 시작된 유서 깊은 행사여서 연꽃이 없어도 작년엔 그대로 하였지만, 올해는 이름도 바뀌어 에코 파크 커뮤니티 페스티벌이었다. 연꽃 대신 수초를 가득 퍼다가 군데군데 섬처럼 만들어 놓았는데 운치

스트(bucket list)에 올려두었다니 아들이아가 웃는다.

일주일 내내 회사일 하다가 토요일엔 밀린 집안일을 하고 주일엔 교회에 가서 종일 지내는 터라, 주말에만 운행하는 오리배에 승선하기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7박 8일 크루즈 여행도 아닌 오리배 타령이 서글퍼 보인다는 친구도 있다. 오리배는 일상의 사소한 여유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산타 바바라에서 타본 2인용 자전거처럼, 디립다 페달을 움직여야 가는 오리배 타기는 매우 힘이 들지 모른다. 카탈리나 섬에 놀러가서 여자친구와 오리배를 타 본 아들이가 말이 발로 짚기가 장난이 아니란다. 유유히 떠 있는 우아한 백조가 수면아래서는 씬 씬 발장구를 쳐야 하듯이 말이다.

그래도 마누라의 소원이 얹어 큰 반지라든가 좋은 가구나, 럭셔리한 차가 아닌게 천만다행인지 조만간 배를 태워주겠다고 남편은 선뜻 대답한다. 대학 시절 조정부 주장이었던 남편을 기억한다. 큰 키에 근육도 울퉁불퉁하고 건장하였다. 안심하고 배 짚는 일을 맡길 수 있었다. 든든했다. 남편과 나는 청평 호수에서 보트를 쫓던 그때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신혼 때 경주의 보문단지에서 유람선 타던 그 젊은 날을 아직도 추억하는가?

머지않아 오리배를 열심히 젓고 있을 쪼그라든 청년과 퍼져버린 처녀를 상상했다. 청년은 오십견으로 팔이 부자유하고 처녀는 관절수술을 하였기로 다리가 불편하다. 배를 타고 에코 파크 그리 크지 않은 호수를 건너가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 동네 살면서 우리의 젊음도 에코처럼 아득히 사라져갔다. 다른 동네에 살았어도 젊음은 흘러갔을 터이지만 참 오래도록 한 곳에 함께 살았다. 우리도 언젠가는 에코 파크의 연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Dear 이희련 선배님,

선배님과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매우 기쁩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중요한 일일수록 tension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러한 tension이 없으면 저희는 성장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힘들이지 않고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자주 합니다. 그러나 옆에서 보니 너무나 잘 대처하고 계신 것 같아 자랑스럽습니다. 혹시 제가 멀리서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알려주세요.

보내주신 통합 동창회 명칭에 대한 글을 읽으며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통합 동창회의 명칭에 관하여 이화여대 “북 미주 지회 연합회”로 부르든지 아니면 이화여대 “북 미주 동창회”라 부르든지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회 연합회”라는 명칭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이 아니지요. 설혹 지회 연합회라고 공식적으로 부르더라도 저를 포함하여 많은 동창들은 그냥 이화여대 동창회라 부를 것이라는 생각이었고 그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명칭에는 개인적인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내주신 글을 읽으며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글을 쓰신 분이 지적해 주셨듯이 북 미주 지역에는 5000명 이상의 이대 동문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분들 중 현재 어느 특정 지회에 속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숫자는 극소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문들은 여러 가지 개인 형편으로 또는 교통문제 때문에 지회 참석이 힘듭니다. 그래서 지회는 생활의 여유가 있는 특정 동문들이 모교를 위한 fund raising (기금 모금)등의 특정한 사명의식으로 모인 단체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된 이민 생활에서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동문들에게 지회의 문턱은 너무 높아 보이는 것이지요.

또 북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동문들의 특성상 모두 흩어져 살고 있으니 학창시절에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이 특정 지역에만 모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통합 동창회의 목적은 북 미주 곳곳에 흩어져 살고 계신 동문들을 되도록 많이 초대하여 경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큰 부담 없이 일년에 한 번 쯤은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만은 대학 동창회는 여유가 있는 특정 동문들의 모임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소외감을 느껴 가까이 하지 못했던 동문들이 이화여대 동창이라는 자격 한 가지만으로 안심하고 나와 그림던 모습들을 발견하고 서로 나누며

힘을 주고받는 그런 모임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북미주에 있는 각 지회의 활동들은 이러한 큰 틀 안에서 훨씬 효과적으로 홍보되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다. 각지회의 역할과 의미가 지역적으로 편리하게 모일 수 있는 동문들이 특정한 사명의식과 목적 안에서 함께 힘을 모으는 데에 있다면 통합 동창회의 중요한 역할은 그러한 동문들을 만나 함께하는 자리를 제공해주고 또한 이와 함께 지회의 역할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겠습니다. 통합 동창회가 동문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소속감과 연대감은 자연히 이웃을 향한, 사회를 향한, 또는 모교를 향한 사명의식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만일 통합 동창회의 명칭을 지회 연합회라 부르면 그 목적이 특정한 사명의식으로 인식되기가 쉬워 현재 지회활동에 참여하기 힘든 많은 동문들이 쉽게 참여하기 힘들 것이라는 저의 우려입니다. 그럼으로 저는 통합 동창회의 명칭을 가장 일반적인 이름으로, 예를 들어 “이화여자대학교 북 미주 동창회”로 부를 것을 제안합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저희가 통합 동창회의 명칭을 어떻게 정하든지 이는 “해외지회는 국가별로 연합회를 조직할 수 있다”는 총 동창회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화여대 북 미주 통합 동창회는 실질적으로 연합회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급적으로 (hierarchically) 되어있는 모든 법이나 규칙들이 그러하듯이 총 동창회칙은 원칙을 규정했을 뿐이고 하위 조직의 이름까지 규정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점은 법이나 규칙들은 단체나 국가의 공동선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법에는 예를 들어 그리스도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처럼 변하지 않는 법과 미국 헌법의 수정조항처럼 시대와 장소 혹은 필요에 의하여 제정되는 가변적인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 미주 통합 동창회의 이름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총 동창회칙의 변하지 않는 근본정신을 이해하고 이에 충실하면 이름을 정하는데 따르는 논란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Peace and all good,

이윤경 (가정 67) 드림.

참세도 집이 있다



정선진 (법학 93)
보스턴 변호사

요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집세를 밀리고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들 살기가 어려우니 몇달 연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집을 세놓으시는 분들도 세를 받아 살림을 꾸려가시기 때문에 통상 6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법원에 구제를 신청하게 됩니다. 저희 법률 사무소에서는 집 주인을 대리할 때도 있고 세입자를 대리할 때도 있습니다. 임대인이든 세입자이든,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변호사의 임무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집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입자가 살아갈 길을 찾아주어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적인 이유로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와 집세를 받지 못하면 철거명령을 받아서라도 그런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처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집주인과 임대인 모두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지난달 집주인 한분이 집세를 내지 못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저희 사무소를 찾아 오셨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세입자가 원래는 영세민을 위한 주택 보조프로그램인 섹션 8에 해당하여 대부분의 집세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세자는 한달에 약 200불 정도를 지불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두아이의 엄마인 세입자가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섹션 8 자격까지 상실하며 정부 보조금이 끊기면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인 의뢰인도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지는 않지만 용자금줄을 갚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의 소거명령을 받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두아이의 엄마인 세입자도 딱하게 된 상황이고, 밀린 집세를 받아내지 못하고 또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집주인도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보증금 (시큐리티 데포지트) 수표를 받아놓고도 은행에 넣어두지 않았기 때문에 6개월 간의 집세와 시큐리티 데포지트를 고스란히 잃게 되어있었지요.

저희 사무실의 윌리엄 한 (William A. Hahn) 변호사는 집주인을 통해 임대인에게 영세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법률 서비스 단체를 통하여 세입자의 섹션 8 자격을 부활 시키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세입자가 섹션 8 자격을 상실 했던 것은 가정불화때문에 자포자기 하여 정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생긴 일이었습니다. 법률 서비스 단체를 통하여 섹션 8 자격을 회복한 후에는 세입자가 섹션 8 멤버로서 앞으로의 임대료 뿐 아니라, 그동안 밀린 임대료도 갚을 수 있도록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해 주어야 했습니다.

세입자가 이러한 절차를 밟는 동안 윌리엄 한 변호사는 관계자들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집주인에게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기를 부탁하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법원에 당사자 간에 서로 화해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법원 출두를 미루는 신청서도 제출하였습니다. 밀린 집세와 보증금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고, 변호사를 사서라도 현재의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서 집세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던 집주인은 밀린 집세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윌리엄 한 변호사를 믿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관계자들 모두가 합심하여 결국 세입자는 섹션 8 자격을 회복했고 앞으로도 정부보조금으로 계속 그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두아이를 데리고 떠돌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윌리엄 한 변호사는 밀린 집세뿐 아니라 전에 세입자에게 받았었지만 은행에 넣지 않아서 무용지물이던 보증금(시큐리티 데포지트)까지 청구하여 집주인은 밀린 집세와 보증금, 그리고 앞으로 집세가 밀릴 염려가 없는 세입자까지 얻는 일거 삼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모든 서류가 인증된 것을 확인한 후에 윌리엄 한 변호사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집주인의 고소를 취하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집세와 관련하여 불편한 관계에 처했으면서도 서로 인간적인 배려를 잃지는 않았었기에 좋은 결과가 가능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상가 가 아닌 주거지였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보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입자 역시 악의적으로 집세를 연체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어려움에 처했었기 때문에 영세민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능했지요.

본 소송을 통하여 원수가 될 뻔한 두사람이 오히려 임대차 관계를 넘어서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이웃이 된 것을 보면서 변호사로서 흐뭇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주택 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분들께서도 많은 경우 상처와 양금을 남기는 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인내심을 갖고 화해와 이해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인과 한국 학교



이문희 (작곡 77)
보스턴 지회 부회장
북부 보스턴 한국 학교장

우리 한국 학교는 북부 보스턴 연합 감리 교회 소속, 부설로 이미 30년 전에 설립되었다. 얼굴색과 피부는 바꿀 수가 없다. 유년기부터 우리는 어디서, 왜 왔으며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두 가지의 문화 속에 혼란을 겪으며 방황하는 2세가 아닌 두 개의 문화를 창조적으로 지향할 수 있는 이점을 기쁘게 인식하면서 세대의 국제적 감각을 지닌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설립 되었다고 설립 취지에도 명기되어 있다. 2세들이 크면서 겪는 가장 심각한 고민은 바로 정체성의 혼란, 자기가 누구인지를 혼동하는 데 있다.

다른 인종에 비해 유난히도 교육열이 높은 우리 부모님들이시다. 그 부모님들 중에는 영어를 잘 배워야 학교공부도 잘하고 사회 적응을 잘하여 자녀들이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여기시는 분도 있다. 그러나 영어 실력은 우수하나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그것은 실로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정체성(self-identity)을 확고히 하여야 한다. 나를 확실히 이해함으로써 남도 잘 이해할 수 있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미국사회의 훌륭한 시민으로 더 나아가 훌륭한 지도자가 배출 될 것이다. 따라서 북부 보스턴 한국 학교는 한글교육만이 아니라 한국인의 혼을 일깨워 주는 학교로 조상대대로 면면히 흘러오는 홍익인간의 혼을, 기독교 정신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승화시켜 Global 시대의 전인적인 세계 시민으로 양성,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발휘하면서 즐길 줄 아는 여유도 있으며 자기 옆에 넘어진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따뜻한 Korean American을 지향한다. 예부터 우리민족은 개인 중심적 사고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 의식은 언어에도 잘 나타나있다. 단일민족의 자긍심이랄까 자연과 우주를 사랑하며 즐길 줄 아는 이른바 노는 그 특유의 기질이랄까 - 태극기의 태극은 온 우주를 음, 양의 열싸움의 미와 하모니의 조화로 한나라를 대표하는 국기에 내걸었다. 두 상반이 공유하며 존재하는 아름다움, 물과 불, 선과 악, 남과 여, 하늘과 땅, 계절이 깊을수록 더 높은 산을 수배한다. 나무들도 겨울의 잠과 여름의 만개가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삶과 죽음도 조화의 한 가지, 더 깊이 그 최고의 수지와 고통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간최고의 고결한 대접, 구원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우리 한민족은 두 상반이 공유하여 존재하는 사랑과 아름다움을 일찌기 채득하여 많은 시와 노래에 실려 있다. “정”이란 악기가 소울음 소리, 팽과리는 자연의 천둥, 번개의 상징으로 만들어졌으니 이 시대의 동남아 일대, 티베트 지방까지 열기의 도가니로 몰아치는 한류문화는 놀라운 역사 속에 자아의 표출이 분화구같이 터진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이미 김 구 선생님께서 일본을 장사로 중국은 사람 수로 우리 민족은 문화 예술로 뻗어야 한다고 광망하셨다. 또한 그 급한 빨리 빨리 기질과 어우러져 빠른 정보를 필요로 하는 현 시대에 빠른 컴퓨터, 셀룰러폰 첨단 반도체 시대를 리드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지금 현재 우리한국학교에 순수한 미국학생 형제가 한국과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그들에게 우리의 과학적인 세계적으로 우수한 한글 뿐만 아니라 정신문화도 전수하여 자긍심을 심어줄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먼저 그들이 꽃이 이 땅에 설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고, 더 좋은 조국의 발전을 위해 개개인이 나라를 대표하는 작은대사가 되어야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셔서 누구에게나 한 가지 남다른 талан트를 주셨다. 이 잠재력을 유도에 최고로 발전시켜 주는 역할로 선생님들이 곁에 있고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신다.

교육은 힘이다. 이 귀중한 사업에 클래스 시간마다 긴장과 떨림을 느끼는 선생님들이시다. 이러한 비전 속에 100년 대개 사업이 확실히 열매 맺고, 아울러 동창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글을 맺는다.

첨가 설명: 이문희 동문은 20년을 근속하여 뉴잉글랜드 협의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고 두번째로 큰 한국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남은 하루



임경자(약학67)
임상약사, TOH,
The Ottawa Hospital

이제 하루가 남았다. 내일 금요일 직장인으로의 긴 여행을 끝낸다. 무엇을 그리 꾸물거리며 골몰해 하는가고 누가 편지를 주었다. 웃음으로 넘겼지만 내면에선 응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미지의 삶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었고 삶의 기본 틀이었고, 가정과 다름없이 나를 지킬 수 있었던 큰 기둥이었기에 어려울 때, 슬플 때, 아무 생각도 더 할 수 없을 때, 일은 나를 세워 주었고, 시간을 얻고 기회를 기다리게 했고, 모든 것을 잊고 몰두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 하나의 시작이니 서슴치 말라고!?

지금와서 멈추거리는 것은 외면에서 보는 것보다는 내면의 것들이 더 생생히 클로즈업되는 때문일까? 기댈 아무 거목도 세우지 못한 때문일까? 오랜동안 여가선용, 건강유지, 의미창조, 친구들과의 교제등을 준비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왜 모든 것이 발하여 희석된 것으로 느껴질까? 도무지 앞과 뒤를 분별할 수가 없다. 동료들의 축하한다는 포옹과 악수에도 불구하고 마음 속에 끼어든 구름을 거둘 수가 없다.

차츰 무엇이 나의 마음을 가로 막는지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로, 그것은 사회의 일선에서 물러난다는 돌이킬 수 없는 사실 때문이었다. 단순히 여행을 즐기며, 자연을 즐기고 먹거리의 풍요함을 음미하는 것으로 시간을 채울 수는 없지 않을까? 나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여야 할 때이고 삶에 의미를 부여하여야 하는 사실은 분명하였다. 둘째로, 그것은 때의 흐름의 무상함 때문이었다. 어쩔 소년으로 강충거리던 시절이 섰는데, 이미 얼굴에 주름이 뚜렷해지고, 추시는 신체의 부분 부분이 느껴지며, 피곤을 회복하기가 더해진 스스로가 퇴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음을 쓰게 되었는지 마음이 무거웠다. 셋째로, 그것은 인생의 시작이라기 보다는 인생의 마무리 하는 시기로 접어든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어두움이 깃들고 밤이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어야 할 때가 이르는 것을 안다. 흰머리의 지혜와 풍요로움을 젊은이들에게 전수하는 현재의 모습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무릎을 들어낸 발랄하고 즐거운 짧은 치마를 우아하고 멋이 풍겨나는 긴 치마로 갈아입어야 할 때인 것이다. 아무리 젊어 보인다고 이 옷이 소근거려도 바꿀 수 없는 외적인 변화를 인정하여야 할 때인 것이다.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한가지 사실은 이제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새것을 찾아야 하는 부담을 소화해야 하지만 더 이상 누구의 무엇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인생 초기의 자유함으로 되돌아 갈 때가 주어졌다. 그렇다 하여도 이렇다할 이유없이 평하니 눈물을 잘 돌리고 있다. 웬지 모르나 평하니 눈물이 돈다.

퇴직하는 마지막 날을 생각해 본다. 선물을 준비하며 나보다도 더 즐거워하는 동료들을 보며 나의 퇴직이 스스로들의 자유함을 누릴 날들을 기다리는 것을 깨달았다. “너를 잊지 못할 거야” 하는 동료들이 이별의 고통을 더하고 있다. “비 대체, ir-replacable하다는 말은 나에겐 없다” 는 말들을 나누며 애뜻함을 나누었다. 나를 받아주고 생각게하고 새롭게 형성케하며, 거듭해서 재생케한 지난 날의 나의 직책에 감사하며 모든 분야의 전문직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주위 분들이 아직도 기대를 걸고 격려하고 계신 것을 보며 “운 좋은 여자” 라는 생각을 한다. 먹을 것 걱정 없고 집있겠다 얼마나 좋으냐는 것이다. 전과 같이 활동하며 이웃과 놀며 지내자는 것이다. 잘 생각해 보아야겠다.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시작하여야 할까? 모호한 감정에 쌓여 있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그토록 삶에서 이루고자 했던 모토, “멋진 여자!” 더욱 멋진 나를 만들 기회로 “멋진 인간이 되자” 는 소망을 되새기었다. 아주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가 보다. 의미있고 끝나지 않은 삶의 탐구가 계속 되어야 인생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 내게 되겠다고 생각기에 신중을 기해 본다. 전문인으로서의 삶이 외적인 자기 실현의 장이었다면 이제 내적인 실현에 총력을 기울일 때이다.

한 막을 내린다. 다시 다른 장을 열어야 한다.

생의 한 전환점에서,

어떤 동창들이 동창회에 오는가?



한수강 (영문 65)

이제 통합의 출발은 시작했는데, 동창회에는 어떤 동창들이 올 것이며, 얼마나 참석하며, 어떤 Program으로 동문들을 맞이하며 어떻게 대접 할 것인가? 또 어떻게 동창회가 이어질 것인가? 나한테는 큰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란 친구를 많이 갖는 것”이며, “성공이란 좋은 친구들로 이어져 있는 group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동창회에 관한 Survey를 한 글을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누가 동창회에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한 Survey에서 첫째 group은 성공했다고 행복하게 자신이 느끼며 사는 동창들이고, 둘째 group은 나이 들며 은퇴하고 자손들이 독립하여 나가 살면서 외롭게 느껴지고,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만나고 싶어 오는 동창들, 그리고 셋째 group은 어디 분명한 group에 속해져서 자신의 Secure한 소속감 (sense of belonging)을 boost 하고 싶을 때 나오는 동창들이었습니다.

이제 북미주의 통합된 동창회도 새로 출발하는 이때에 참석하는 위의 세 부류의 동창들을 다 고려해서 Program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성공한 동창들을 위해서는 Fund에 대한 Plan을 소개하고, 외로운 동창들에게는 옛날 이화동산에서 꿈을 펴고 즐겁게 지냈던 옛 벗들과 회포를 풀 수 있는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며, 소속감을 중요시 하는 동창들에게는 예를 들어 선거 때 투표율을 동창들이 높이는 Plan과 Business Project도 동창회에서 도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위에 말한 바와 같이 행복한 동창회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동창들을 갖고, 많은 동창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동창회가 되어야 합니다. 동창들이 많이 참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창들은 많이 배출했는데 동창회에 참석하는 동창들이 적으면 그것은 동창회가 어떤 면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많은 동창들이 오기를 원하면 첫째 동창회에 들어가는 문턱이 낮아야 합니다. 첫째 문을 여기 저기 활짝 열어 어느 지회나 본부 등에 아직 등록되지 않은 동창이라도 동창이면 다 walk-in 할 수 있게 Flexible한 Policy로, 포용력있는 그런 동창회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움을 갖고 찾아 오면 옛날로 되 돌아가 즐겁고 화기 애애한 만남 속에서 활력을 되 찾으며 좋은 추억들을 안고 돌아가 빨리 동창회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동창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Fun과 Food, 그리고 Friends가 항상 쌓여있는 동창회, Fund 보다는 Fun을 위주로 하고 English보다는 Korean을 쓰는 우리 동창회를 원하면서...



2009 북미주 통합이화 동창축제 보고

이 미 옥 (국문 68)
덴버지회장 및 총회공동회장

프롤로그 [통합 준비위원들의 모임]

2009년도 1월 20일 덴버에서, 그동안 존재해 왔던 두개의 북미주 이화여대 동창회의 대표 6명의 첫 모임이 있었다. 북미주총동창회의 김광자, 최경숙, 김정희 그리고 지회연합회의 이미옥, 이정형, 마혜화는 양쪽 동창회를 하나의 통합 동창회로 만들기 위해 2박 3일에 걸쳐, 동창사랑, 상호배려, 서로존중, 모교사랑을 그 기조정신으로 삼고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토의를 했다. 모든 경비는 반반으로 하되, 합심하여 총회를 이룬다는 것으로, 뉴스레터 및 이화 메가진, 관공은 북미주총동창회측에서, 그 외의 모든 만반의 총회 준비는 지회연합회측에서 하되, 총회 참가비는 200불로 예년 지회연합회측의 참가비의 반 정도로 내렸다. 더 많은 동창들이 부담없이 올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열린마음, 열린정신(open heart, open mind)을 서로 강조했다. 그 뒤에도 수 차에 걸쳐 두서너 시간씩 전화로 회의(telephone conference)를 했었고, 통합이 될 것인가를 앞에 두고 양쪽 모두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렇게 만만하게 순항을 한 것만은 아니었다.

제 1장 목요일 (11월 12일)

통합 준비위원들은 어제 이미 도착하여, 덴버 지회 몇몇 멤버(cadre)들과 저녁식사를 같이 나누며,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또한 45여명의 동창들도 수요일, 정오에 덴버 공항에 도착 하자마자, 글렌우드 온천으로 단체 자유관광 여행을 떠나서 목요일 6시까지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다. 이미 덴버 팀들은 환영 기프트를 그들의 관광버스에 실려 보냈다. 따뜻한 덴버 날씨가 여행길에 도움이 되리라 믿으면서... 환영 기프트는 모든 동창들을 위해 준비되었고 그 안에 이화 로고가 들어있는 담요, 2010년도 이화수첩 및 데스크 캘린더, 총동창회에서 보내온 알람시계, 아모레 회사에서 도네이션한 화장품 일절, 덴버 기념품인 조그만 술잔(shot glass)들을 넣어 노스트롬(Norstrom) 백화점 가방에 형형색색의 예쁜 종이로 잘 포장해서 나누어 주었다. 덴버의 사랑을 담백 담아서. 덴버의 늦가을 아침은 상쾌하게 열렸고, 이화동창들은 아침부터 덴버에 도착하기 시작했지만 3시에 등록이 시작되었다. 젊은 후배들, 김선희, 김순, 허영미, 백홍자, 김진희, 김윤미가 회계 금융연과 같이 안내 및 등록 데스크를 맡아 등록비를 받고, 선물 나누어 주는가 하면, 환영 리셉션실인, 열방에서는 김밥 도시락과 물 한 병씩을 일일히 한 동창, 동창에게 건네주는 방희정 선배가 수고하고 계셨다. 지난 해에 이어 다시 만나는 동창들의 반가움 터지는 소리들, 미소와 포옹, 즐거운 비명들은 우리 모두를 기쁘게 했다. 6시 반에 회의장에 다 모여, 각자 및 지회 소개들이 있었다. 북미주 22개 지회에서 200여명의 동창들이 모였고, 서울에서는 총동창회의 김순영 총동창회장, 부회장 김경숙, 최금숙 대외협력처장, 이명선 공영문화연구센터소장, 대외협력처 박지영, 국제교류과의 서영주, 한민영 비서, 김용란 홍보부장 등이 참석했다. 국제재단 이사들과 몇 세션 리더도 감리교 감독이자 이사장(Bishop Sharon Rader)도 곧 도착했으며, 이윤경 박사가 곧 이어 “서로 알기” 세션(Get to Know each other)을 2시간 정도 흥미 진진하게 이끌어 갔다. 한 사람씩 무대에 올라가서 서로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각자의 느낌으로 옆 동창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바쁜 스케줄 관계로 이배용 총장 일행은 자정이 가까운 때에 도착했다.

제2장 금요일 (총회, 호수에서 점심, 총장과의 만찬)

이번 통합을 위한 총회 준비로 덴버측에서는 미연합감리교회 여성단체(United Methodist Women's Division)의 디렉터로서 가장 회의경험이 많은 장금자 총무에게 사회를 맡겨, 좀 더 남의 의견을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는 민주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기울였다. 따라서, 2시간에 할애 된 타임 프레임 안에서 가장 최고, 최선의 의견을 모으는 건 애초부터 드림 워크인지도 모르겠지만, 양쪽 동창회측의 서로 다른 의견들을 최대한으로 포용하고, 통합을 이룩한다는 데에 목적을 두고 공동회장인, 김광자와 이미옥은 회의를 진행했다. 많은 논란 끝에, 3가지간건, 같은 영어명칭을 당분간 쓸 것이며, 양쪽 이사들을 영입하여 당연직이사 및 선출이사가 한 이사회를 만들며, 사무총장을 두는 건에 대해 대다수 동창들이 동의하여,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더 자세한 디테일은 6명의 양쪽 동창회 전임 회장들(이미옥, 이정형, 최성남, 김광자, 이정은, 한영숙)과 현 회장 이희련 등 7명이 task force team이 되어 상의, 토론하여, 내년 라스베이거스 총회에 보고할 것으로 맺음을 했고, 김순영 총동창회장의 격려사로 통합 이화동창회 총회는 막을 내렸다. 150여명의 동창들은 긴장되었던 총회를 뒤로하고 관광버스에 탑승하여,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브로드모어(Broadmoor Hotel)로 갔다. 옛날 콜로라도가 금광 노다지로 번쩍 번쩍하던 한참 빛나던 시절에 부자들이 모여 연회하던 곳으로, 가장 우아하고 값비싼 이 호텔에 호수를 바라보며 점심을 하기 위해, 덴버측에서는 정재연, 이종진, 김인숙, 금우연 동창들이 특별 로비를 했었다. 3코스 점심을 끝내고 예쁘게 사진을 호수가 앞에서 찍고, 다시 탑승하여, 공군사관학교와 신들의 정원이라는(the Garden of the Gods)코스도 관광을 떠났다. 관광에서 돌아온 동창들은 곧 6시에 시작된 총장과의 만찬에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운 모습들로 나타났다. 일본 NHK및 한국 아리랑 TV의 앵커로 한때 이름을 날렸던 덴버동창 김인숙 선배의 자부인 김재은의 프로페셔널한 사회는 이중언어로 멋있게 진행되었다. 동창 황은주 부부의 첼로/하프 이중주, 김미연의 그리운 금강산, 김순영 총동창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이배용 총장의 인사 및 모교소식이 하이라이트를 이루었다. 리더 이사장의 이대기금전담이 있었고, 이어 덴버지회측의 환영 합창으로 콜로라도의 달 밝은 밤에 이어 노래자랑 장기대회(Denver Idol Contest)가 있어 모두들 한껏 노래자랑으로 멋있게 한 품을 잡기도 했다. 그리고 댄스, 댄스, 댄스... 덴버의 엘리자베스 킴과 엄준 악단의 듀엣... 교가 합창으로 금요일 밤은 끝났다.

제 3장 토요일 (세미나, 시내관광, 연례만찬)

어저께 그렇게도 화창했던 가을 날씨는 언제던가 실게 변덕을 부리더니 우리 모두를 겨울문턱에 갔다 놓는다. 아이구...소리를 내며, 덴버 팀들은 우선 관광코스를 산행이었던 베일(Vail)로 부터, 덴버 시내관광으로 버락치기 하듯 바꾸며, 점심을 오더했던 제이슨 델리(Jason's Deli)로 부터 오더 취소하고, 따뜻한 한국 점심으로 순발력있게 바꾸어 아 하는 과정에서 덴버팀들은 한마음이 되어 기동력있게 잘 변경할 수 있었던 것.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기만 하다. 관련되었던 후배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예정대로 아침 두시간에 걸친 세미나는 잘 진행되었다. 강경숙 선배사회로 시작되어, 강위조 신학박사의 이슬람 종교에 관하여, 임은혁 약학박사의 약에 관한 여러가지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정진 정신과의사의 여성 정신건강에 관하여 3가지의 다른 이슈로, 종교, 애, 정신건강에 관해, 알뜰살뜰 우리의 생활과 상식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였다고 생각된다.

밖은 쌀쌀한 날씨로 곧 겨울인가 실게 우리를 맞이한다. 버스에 오른 우리 동창들을 모시고, 3군데 한국 레스토랑으로 나누어져서 점심을 하러 갔다. 날씨가 추우니, 떡만두국과 따뜻한 비빔밥 등으로 메뉴를 제한하여, 따뜻하게 점심 식사를 마치고, 다시 버스로 시내 관광으로 들어갔는데, 덴버측에서는 각 버스에 2명씩, 덴버 안내를 동창 및 사위들을 파송했다. 조금이라도 도움 차원이 될까 해서였다. 아름다운 베일 스키장과 산에서 점심 및 피크닉을 할 수 없었던게 지금도 안타까움으로 남아있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날씨라는 변수를 어찌겠는가?

적당히 피곤했던 동창들은 다시 연례만찬을 위해 반짝 반짝이는 날개 같은 드레스들을 입고 연회장으로 모인다. LA동창인 김영교 시인의 축사로 만찬은 시작되어, 이귀임 동창의 축가로 이어졌다. 오늘 저녁 주계 기초연설자는 우리 덴버, 이인자동창의 따님인, 와싱턴지역의 유재갑, 미셀 리이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교육혁명가이자, 가장 많은 미 주류 메스컴을 타고있는 자랑스러운 미셀은 유모러스하게, 강단력있게 한국 어머니 밑에서 교육받고 자랐기 때문에, 뒤집어없는 세교육정책을 설립하는데 아무런 두려움없이 잘 도전할 수 있었다는 교육개혁 현실을 한국 프레임즈를 섞어가며 잘 말해 주어 청중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또한 이배용 총장은 미셀을 한국 전국총창회의 연설자로 초대하기도 했다. 곧 이어, 올해도 예년과 같이 파주캠퍼스를 위한 모금을 시작하여 25명 이상의 개인 및 지회가 모금에 참여해, 그 자리에서 기록적인 총25만불의 약정액을 약속 받았다.

마지막은 지회 장기대회, 뉴욕 지회의 뉴욕 뉴욕에, 휴스턴 지회의 사랑의 종소리 듀엣, 남가주 지회의 라인댄스, 씨야들의 초현실적, 퓨전의 비발디 4계, 덴버의 사랑꾼 이야기로 뜨거운 경합을 이룬 결과, 단연 씨야들의 4계가 최고상을 받았다. 보스턴의 장기는 전날 막간을 이용하여 퍼모먼스를 한 결과, 경합에서 빠지는 실수아닌 실수도 있었다.

제4장 일요일 (총동창회의 아침초대, 주일예배, 총장간담회, 임원교제)

그렇게도 풍성한 아침 식사는 처음 부나는 갑탄사로 시작된, 총동창회 김순영 회장이 마련한, 아침식사는 말 그대로 황홀했다. 허임자 동창목사가 주관하고, 최경숙 동창 사회로 이어진 주일 예배는 “세상이 알게하소서” 라는 설교 중심으로 이어져서 통합된 모든 우리를 고요하게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했다. 일요일 예배를 위해 대표기도하기 위해 오던 도중에 차 사고가 난 임소영 동창 목사상 또는 또한 전날 회의 참석차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덴버 유학생 동창 김순서 씨를 위해 모금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1500불 상당의 현금이 모여졌던 것은 따뜻한 동창 사랑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총장 간담회가 있었고, 또한, 연례 통합 동창회를 인수인계하는 임원교체를 마지막으로 2009년도 컨퍼런스는 그 막을 내렸다. 밖에는 눈발이 꽤 커지고 있었다.

에필로그 [마지막 소식]

데리고 마음 조이며 준비했던 덴버 통합총회는 여느 받아놓은 잔치가 그러하듯 많은 동창들에게 통합이라는 크고도 큰 명제를 안기고 끝이 났다. 덴버동창회는 그 다음날 종 파티점점 점심을 사무라이 레스토랑에서 가지며, 김순, 임소영 두 동창에게 나중 한 덴버 동창이 더 낸 모금, 모두 합해 1707불을 건넸고, 모두 수고한 동창들의 노고를 서로 축하하는 식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무사히 끝남을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Ewha 2009 덴버 총회 사진앨범







이배용 총장 글로벌 리더십 상 받으시다

Sunshine State에서, 이 동 우 (영문 57)



저희 플로리다 탬파의 이화인들은 금년초 이배용 총장님을 이곳에서 뵈 온일이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총장님께서 2월 11일,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 (The University of South Florida) 산하의 국제 지속 가능성 대학원 (The School of Global Sustainability) 창립식에서 글로벌 리더십상 [the President's Global Leadership Award]을 받으셨습니다. USF가 수여한 “세계지도자상”은 자연 환경의 보호, 인성교육 및 자연과의 정신향상 교육면에서 월등한 leadership을 발휘한 지도자에게 부여되는 상입니다.

이 총장님의 비존인 자연과 인성교육이념, 그리고 이화의 학생들에게 최우선으로 강조해온 총장님의 글로벌 리더십이 높이 평가되어 본 상을 받으신 총장님께 우리 이화인 모두가 영예의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화여대와 자매결연하고 있는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에서 수여하는 상을 받으신 총장께서는 이런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 두 대학의 든든한 우호관계를 기대하신다면 수상 연설을 하셨습니다.

“20세기의 평화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의 소극적인 평화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21 세기의 평화는 ‘안정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전 지구적 인류의 노력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합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어서 총장님께서 이러한 일환으로 124년의 역사를 가진 이화는 세계 최대의 여자대학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인재 양성과 해외 우수학생을 유치하여 동서양을 잇는 대학교육의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총장님은 계속해서 이화의 21세기 세계적인 ‘글로벌 지도자’



‘평화 지도자’ 또한 ‘통일 지도자’ 양성을 위한 이화 글로벌 평화 센터 (Ewha Center for Global Peace)를 파주캠퍼스에 건립할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화는 평화에 대한 열망과 진정한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화는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총장님의 강인한 의지를 오늘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실로 2010년 2월 11일의 총장님의 ‘세계 지도자상’ 시상식은 온 이화인들에게 ‘명예와 영광’의 축제였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온 이화인들은 힘을 다하여 총장님께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이화 만만세’를 마음속 깊이 외쳤습니다.

서울과 탬파를 잇는 2박 3일의 짧은 여정 중에도 이곳 동창들을 보고 싶어하신 총장님을 모시고 동행한 이화인 세분과 이곳 탬파의 이화동창들이 다함께 모여 시상식 전날 즐거운 저녁모임의 시간을 갖을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식당에서 손에 손을 붙잡고 [이화, 이화, 우리 이화!]하며 목이 터져라 교가를 불렀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불렀던 그날의 교가소리가 내 귀에 울리고 있습니다.

**“Sunshine 지혜와 여성적 leadership으로,
신뢰와 겸손, 사랑과 헌신의 Scranton Spirit을 의지하여,
진선미 이화 정신을 발휘하며,
우리의 주체성 이화정신을 지속 / 키워 나가야겠다.”**

그날 저녁에 들려주신 총장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가슴속에 오래 오래 살아 지속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화의 선후배님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의 평강하심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원 하면서.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 강당을 메운 많은 교수들, 학생들, 그리고 여러층의 하객이 참석한 수상식장에서 하신 이 총장님의 연설은 너무나 감명스러웠습니다. 총장님은 미래로 향하는 새로운 이념을 심어 주시고, 많은 이들의 가슴에 새로운 21세기를 맞는 감동과 열정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날의 정열적인 총장님의 연설의 하이라이트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남가주 지회

오 명 애 회장 (장식미술 74)



남가주 동창회는 1953년에 설립되어, 현재 1,400여 명의 동문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2009년 12월: 12일, 2010년 동창 주소록이 발간. 동창주소록 이번이 네 번째로 1995년부터 매 5년마다 발간됨. 13일, 정기총회 및 크리스마스 파티. 이 자리에는 150여 명의 동창들과 이화의 사위들이 참석했고, 순서는 1부 정기총회와 2부, 이화인의 밤으로 나누어져 진행됨. 16일, 선교부에서 성탄 축하예배 및 친교의 시간을 가짐.

2010년 1월: 9일, 합창부, 10일, 건미회가 신년하례식. 선교부와 합창부는 매 주 한번 건미회는 한 달에 한번씩 모이고 있음. 15일, 엘에이를 방문한 EGI (Ewha Global Initiative) 4기 팀인 이화 재학생들과 이곳 동창들이 만남의 자리를 가짐. 19일, 김주경 전회장장과 오명애 현회장 등, 다섯 명의 임원들이 중앙일보를 방문하여 아이티 성금, 1000 달러 전달. 21일, 동창회 산하 미술대학동창회인 남가주녹미회 발족. 녹미회는 두 달에 한번씩 모이기로 함. 29일, 전 임원진의 마지막 임원회 열림. 이 자리에서 김주경(관현악 75) 전회장은 기존에 오만여 달러였던 이화정기예금(동창기금)을 2008년 팻손쇼에서 얻은 만 달러를 추가한 것을 보고하고, 2009년에 모아진 금액을 다시 더하여 절반 달러로 올리는 안건을 제시해, 만장일치로 통과됨. 그리고 모든 서류를 신임회장 오명애(장미 74) 동문에게 인계함.

2월: 1일, 골프부에서 아이티 지진성금 500 달러를 한국일보에 전달. 10일, 녹미회 정관 완료. 12일, 현임원진의 첫 임원회 열림. 이 자리에서 오명애 회장은 이화동창기금에 전회장단이 2만 달러 추 가한 것과 전년도에서 동창회비로 이월된 금액이 1천 4백 달러임을 보고하고 주변에 더 많은 동창들에게 동창 회비를 받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임원회는 매달 한번씩 열림.

3월: 11일, 2010년 이사진의 첫 이사회 열림. 올해부터 이사장을 맡게 된 김수경(작곡 75) 동문이 문금숙(국문 63) 동문과 박화자(간호 66) 동문을 부이사장에 선임함. 이사회는 일 년에 두 번 열림. 14일, ANN 330 Gallery에서 녹미회 모임 가짐.

4월: 7일, 제 2회 임원회를 겸해 동창회보 발송함. 동창회보는 4월과 11월, 일 년에 두 번, 남가주 전지역에 살고 있는 1400여 명의 동문들에게 발송됨.

5월: 16일, 제 7회 남가주동문합창단(단장/박광순 기문 63)의 정기공연이 약 450여 명의 동창과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셔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가곡과 성가 등, 6부로 나누어 진행이 된 이 공연에는 정매인(성악 60)동문의 독창과 이화동문중창단의 순서도 곁들여졌다. 지회에는 엄인용(성악 72) 동문, 반주에는 최예린(피아노 04) 동문이 수고했다. 22일, Wilshire Grand Hotel에서 열린 제 1회 고려대학교총연합회 전미주대회에 오명애 회장 이하 4명의 임원이 초대되어 이대남가주동창회 대표로 참석했다.

6월: 17일, Coyote Hills Golf Course에서 2010년 총장배 Golf Tournament가 있었다. 이 행사는 매년 동문자녀들의 장학기금을 위해 개최되고 있으며, 이 날은 동문들, 손님들, 모두 70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챔피언의 영예를 안은 함명자(체육 79)동문은 하명숙 골프회장이 기증한 \$500 상당의 독수리 트로피와 부상을 받았다.

앞으로 9월, 한가위 잔치겸 횃손 쇼. 11월, 본 동창회 주최 녹미회 후원

으로 개최할 미술전시회와 12월, 올 한해를 마무리할 2010년 정기총회 및 송년파티이다.

* 동문 근황

김영교(영문 63) 2 권의 수필집 <소리 지르는 돌>과 <길 위에서>, 그리고 <물 한방울의 기도> 의 4 권의 시집을 발간한 바 있는 시인 김 동창이 제 5 시집 '새롭게 떠나는 작은 새' 를 출간했다. 출판기념회는 남가주 동창회 선교부 주최로 150여 명의 문인, 동창,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4월 14일 LA가든스위트 호텔에서 열렸다. 시집 <너 그리고 나, 우리>로 제 10회 이화문학상을 수상했다.

정금숙(국문 63, 윤금숙), **이영강**(국문 66, 김영강), **임정아**(가정 77, 이정아) 세 동문이 소설, 시, 수필, 동화가 실린 동인지 "참, 좋다" 를 6월에 출간했다. 동인지에는 두 명의 작가가 더 참여했다. 정금숙 동창과 이영강 동창은 미주 한국일보 신춘문예 소설부문으로 등단하여 소설가로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임정아 동창은 현재 수필문학가협회 회장 및 미주한국일보 칼럼니스트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숙현(가정 67)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미음악재단 산하, 한미청소년 오케스트라가 3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디즈니 홀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이는 LA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초청으로 이루어진 특별 연주였다. 이 연주회는 LA 필하모니가 권장하고 있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의 일원으로 개최된 것으로 세 팀의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선정되어 참여했다.

성기순(섬에 69, 미주한국민화협회 회장) 동문 문화생활 전시회를 열었다. 이는 경인년을 축하하기 위한 호랑이 민화전시회로 2월 13일부터 20일까지 L.A 한국교육원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2월 16일, U.C 어바인 다민족문화 설날맞이 문화축제에서 성 동창은 140여 명의 U.C 어바인 학생들에게 호랑이 민화를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다.



윤종임(서양화 74) 동창이 베블리 힐스 지역에 ANN 330 Gallery를 개관하고, 5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LA Times Magazine에 소개된 영국 사진작가 Alexander James의 Taxi series 전시회를 열었다.

이정현(도서 76, Joy Kim)은 한국인으로서의 물론, 아시아 여성으로서도 최초로 '북미지역 동아시아학 도서관 협회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CEAL)' 회장에 선출되어, 3월 5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연례학회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현재 USC 도서관장으로 재직 중인 이 동창은 "Korean Studies Librarianship Outside of Korea: A Practical Guide and Manual" 을 출간하여 북미주뿐만 아니라 영국과 유럽의 여러 도서관에서도 한국학 도서관 운영의 유일한 지침서로 사랑받고 있다. 이 동창은 2009년, 자랑스런 이화동창에도 선정된 바 있다.

보스턴 지회

조 수 헌 회장 (76 수학)

보스턴에는 이화 동문들이 백여명 있고 50% 동문들은 약사, 리얼터, 의사, 리처처, 선생님, 회계사, 프리랜서, 회사원, 자영업 등의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어린애들의 젊은 엄마들이 많이 있다.

1월에 임원과 이사들의 모임을 압구정 레스토랑에서 재밌게 가졌다. 2011년에 있을 북미주 동창회와 이화국제재단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덴버에서 있었던 총회에 참가하여 즐겁고 기억에 남을 시간을 가졌고 동창들과의 멋진 만남을 위해 애쓰기로 다짐했다.

또한 2월에도 멀티 제너레이션의 동문 20명이 모여 새해의 계획을 나누었다.



3월과 4월에도 오찬회와 이사회를 열어 2011년 10월 27~30일에 Westin Waltham 에서 있을 이화재단-북미주 동창회 모임을 위해 의논하였다.

매달 오찬회 외에도 7월에는 팅글우드로 음악회-피크닉을 갈 예정이다. 또 동창회 2010년 주 소록을 프린트하여 나누었으나 일년 안에 다시 준비 중이니 고

칠 사항이나 새로운 동문의 이름(한영), 졸업연도와 과, 주소, 전화번호(집,셀), 이멜주소를 알려 주길 바란다. 이메일 ewha.boston@gmail.com 으로 연락 부탁드린다.

보스턴을 방문하는 동문도 돕고자 한다.

박영복 동문의 부군께서 3월에 소천하시어 많은 동문들이 함께한 가운데 역사적인 앤도버의 교회에서 고인의 아름다운 생을 추모하였다.



임원명단

회장 조수현(수학 76)

부회장 & 준비위원장 이문희(작곡 77)

총무 서인숙(경영 73), 신미란(체육 72)

회계 이동은(약학 96), **부회계** 송민정(사생 95)

서기 김희선(법학 77), 권숙희(영교 92)

고문 박영복(영문 61), 김지수(약학 49)

편집 배한원(도서관 91), **섭외** 정선진(법학 93)

이사장 유인성 (의직 75), **차기이사장** 김경애 (의대 70)

올랜드 지회



알찬 올랜드 지회는 이화인의 긍지를 갖고 동문들간의 친목을 돈독하게 하고있다.

계절에 따라 오고가는 동문들이 여러번 계신고로 특별한 행사를 자주 갖기에는 힘든 형편이다.

지난 4월 15 일에는 올랜드에 있는 Harry P. Leu Garden 을 방문하여 생김한 꽃 향기를 맡으며 아름다운 꽃 사이사이를 걸으며 많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필라델피아 지회

강혜란 회장(화학 72)



1월 11일 강혜란 동문집에서 모여 2010년 연례계획을 세웠는데 많은 이사분들이 참석하여 좋은 의견들을 모아주셨다.

2월 1일 영빈관에서 서봉희 동문의 유익한 보험강의가 있었다

3월 1일 Lai Lai에서 안영숙 동문 지도하에 라인댄스 강습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4월 5일 Lai Lai에서 꽃꽂이 강의를 듣고 아름다운 작품을 직접 만드는 경험을 가졌다.

5월 7일 Grounds for Sculpture(NJ) 에서 Monet의 그림 속의 장면을 묘사한 조각과 연못, 다리 등을 감상하며 모네의 식단으로 점심을 하는 친목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Golf tournament fund raising을 하여 모교를 돕는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휴스턴 지회

김명옥 (경영 75)



저희 지회는 특별 행사가 있을때를 제외하고는 한달에 한번씩 동문들 집에서 모입니다. 만날때마다 좋은 강사를 모시고 강의를 듣든지 또는 만드는 것을 배우면서 유익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월에는 13년째 연례행사로 휴스턴 한인노인회에 구정떡국잔치로 어르신들에게 효도 해드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3월에는 매년 호숫가에 백조가 거닐고 공작새가 있고 아펠리아 꽃으로 유명한 식당으로 꽃구경을 가는데 올해는 기온이 예년 보다 낮아서 일주일 후에 모였어도 우리가 보려던 꽃은 보지 못하고 대신 동문들의 만발한 배꽃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은근한 배꽃의 향기를 만끽하고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4월에는 휴스턴 박물관을 관람하고 휴스턴 동문들이 함께 힘을 모아 박물관에 기증한 고려 회청자기(11세기말-12세기초)를 감상하며 뿌듯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작품이 한국관이 개설된 후 4번째로 기증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5월15일에는 총회로 모여 2명의 모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회장단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회에 올해로 60회 회헌식을 올린 이회숙(가정경제 49) 동문은 슬하에 6남매, 손자손녀 17명, 증손자 2명의 다복한 가정을 이루신 분으로 동문들로부터 존경을 많이 받으시는 분입니다. 저희 지회에 자랑스런 동문을 소개 합니다. 김동월(영문 60) 동문은 미국에서 33년간 교편 생활을 하시고 지금은 텍사스 A&M University에 재임중이시며 한국 전래 동화를 미국 정서에 맞게 영문 판으로 출판 하셨습니다. (금도끼 은도끼, 콩쥐팥쥐, 삼년고개, 흥부 놀부, 청개구리)

하와이 지회

한 해 숙 부회장



지난 2010년 2월 6일에 이화여자 대학교 이배용 총장님께서 업무차 하와이를 방문하신 길에 저희 동창회를 찾아 주셨습니다. 현지 동창 20여명과 교환학생으로 와있는 재학생들이 이덕희 동문님(사회학 63)의택에 모여 맛있는 식사와 함께 “이화여자대학교의 국제화에 대한 비전”에 관하여 이배용 총장님의 좋은 말씀과 DVD도 시청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클리블랜드 지회

김 진 경 지회장 (81 의학) 이 경 숙 서기



클리블랜드 지회는 1974년에 처음 설립한 이래 현재 약 60여명의 동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한 번씩 “이화 만남”으로 동창회원들이 모여 친교와 유익한 정보를 나누며 동문가족들의 경조사를 돕고 동창회 행사를 의논합니다.

1883년 매리 스크랜튼 여사의 한국선교와 이화학당 건립을 위해 최초로 선교헌금을 보낸 레베나 감리교회(Ravenna Methodist Church)가 바로 클리블랜드 교외에 약 30마일 떨어진 마을 레베나에 위치해 있으며 우리 클리블랜드 지회에서 이화120주년을 기념하여 레베나 감리교회에 감사패를 증정하기도 했습니다. 클리블랜드 지회는 2004년에 오하이오 주 정부로부터 비영리재단 (Non-profit Organization)의 허가를 받고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정식 등록을 한 이래로 클리블랜드 지역사회를 위해 여성학대 보호기관, 장애 어린이 보호기관, 재향군인회, 한인 경노회, 한국어학교, 한국 입양아 단체 등에 매년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화의 자매학교인 클리블랜드 지역 볼드윈 월러스대학 (Baldwin Wallace College)에 교환학생으로 오는 이화대학생들을 위해 매년 환영 오찬을 열고 볼드윈 대학에 교환학생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지회에서는 이화 국제재단을 통하여 매년 모교 학

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현재 70,000달러 이상의 장학금이 모아져 있습니다.

*2008년 5월 우리 클리블랜드 지회는 이화 총동창회로부터 이화발전에 기여한 공로 (\$45,000달러 기증)로 감사패를 수여받고 총동창회 소망회원이 되는 영예를 받았습니다.

*동창들의 친교 모임인 “이화 만남”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12:00pm에 만나고 매년 11월에는 부부동반으로 이화 연례만찬을 열고 있습니다.

볼티모어 지회

이 승 숙 총무



볼티모어 지회는 지난 4월20일에 노선희 회장님 댁에서 2010년 봄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회장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정성이 깃든 맛있는 점심식사와 함께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볼티모어 지회는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대외적인 활동이나 행사보다는 회원들 간의 친목에 치중을 둔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모임에서는 여태까지 모인 회비의 일부와 몇몇분의 도움으로 이화 국제재단에 \$3,000을 장학금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워싱턴 DC지회

김 흥 자 회장 (섬에 58입, 07졸)



워싱턴 지회는 지난 4월 14일 학술진흥재단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사회생활학과 이영민 교수팀을 맞아 워싱턴 현지 답사를 도왔습니다. 본 연구팀은 “한국 교육이민의 지구적 네트워크와 조국적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를 위해 4월 24일까지 교육이민자 및 조기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지회 회원들은 후배들의 순조로운 조사를 위해 관련자들을 소개하는 등 심심일만 도움을 주었습니다. 4월 17일에는 회장단이 주최한 환영 만찬이 이정철 이사장 댁에서 개최되어 선후배간의 돈독한 우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다양한 지회 활동을 가졌습니다.



매달 한두번 임원회, 3/20 밀알선교 장애우 점심제공과 성금전달, 4/17/10 Little Lights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점심제공 (50명) 과 성금 \$200.00 전달, 4/24/10회원의날 겸 총회가 있었습니다. 5/29/10 건강식품 바자, 7/9,10,11 LA에서 총회(G.C.F. 전체), 10/5/10 임원회, 10/16,17 서울에서 바자, 10/10/10 저소득층아이들 점심제공, 밀알선교 장애우 점심, 11/20 12/5/10 Little Lights Christmas Party에 Cupcakes 300개, 12/18/10 Toy Drive등 불우아동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이화여대 국제하기대학에 한 학기(June 23 - July 20, 2010)를 수강할 수 있도록 인디애나 대학에 재학중인 Brittney Young 과 콜롬비아 대학에 재학중인 Christina Choi, 두 명의 장학생을 GPA와 에세이, 그리고 두 교수의 추천장에 근거하여 선발하였습니다. 이 두 학생은 각각 이화여대 국제 기숙사에서 기거하는 경비와, 건강보험, 그리고 두 과목에 해당하는 학비를 커버할 수 있는 약 3000불의 장학금을 이화여대 대학교에서와 워싱턴 동창회 (500불지원)에서 받게됩니다.

워싱턴 동창회는 교육사업 중 하나로 이 행사를 매년 봄에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워싱턴 동창회에서는 9월24일부터 10월15일까지 주미한국대사관 산하 코러스하우스(Korea Information & Culture Center, EMBASSY of KOREA)에서 "BLOSSOMING WASHINGTON PEAR: INVITATIONAL EXHIBITION" 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알래스카 지회

천 규 윤 (사학 81)



9명의 회원들이 일년에 4번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5월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 \$1000.00 장학금을 4년째 지급하고 있습니다. 벌써 5년째 홀리스 여성과 아동들을 위하여 지역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Ewha International Foundation in N.Y.에 장학기금을 설립하고 매년 장학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파주 캠퍼스 프로젝트를 위하여 10,000불을 약정하고 보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지회는 회원이 적은 지회이나 이화와 이 지역에 크고도 명확한 활동을 보여주는 지회입니다.

사진은 2009년 여름 차기회장(2011~2012)을 뽑으며...

라스베가스 지회

오 선 희 (교육심리학 88)



VIVA LAS VEGAS!

라스베가스 동창회는 그 어느때보다도 더 활기차게 돌아가고있다.

2000년 김치자 동문과 몇분의 동문들께서 시작한 작은 이화 기도모임이 지금은 40여명의 동문들이 참여해 든든한 모임이 되었으며 매월 첫 금요일에 기도모임을 갖는다.

10월에 있을 북미주 동창회 라스베가스 총회를 위해 매월 셋째 금요일에 정기모임을 갖고, 수시로 회장과 임원들이 만나 의논하며 북미주 동창회 총회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지난 4월 17일엔 이회련 회장님께서 동창분들과 부군들이 모여 모임을 갖고 2010년 북미주 동창회 라스베가스 총회 준비현황을 듣고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들을 나누었다. 이회련 회장은 아울러 동창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하고 부군들의 많은 협조도 부탁했다.

현재 모교에서 조성중인 파주캠퍼스를 위한 모금에도 많은 동창들이 성의껏 모금에 동참, 후원하고 있다.

모교를 위해 땀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쁘고, 앞으로 라스베가스에서 있을 북미주 동창회 총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인다.

미네소타 지회



2009년 5월 30일 총회: 철쭉과 아이리스가 만발한 미네소타 수목원에서 가족동반 피크닉을 가졌다. 아름다운 3마일 산책로를 걸으며 선.후배간에 친목을 도모했다.

2009년 8월 14일: Feed My Starving Center에서 봉사 -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포장해서 보내는 이 봉사활동도 3년째로 접어들었다. 동문과 자녀들이 함께하는 봉사로 앞으로도 매년 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2009년 10월 10일 : 심현숙 동문님께서 추진한 파트락으로 시작된 이 모임에서 심현숙 동문의 인도 선교방문을 통해 600불을 기부하고 파주 교육.연구 복합단지 발전기금으로 3000불을 보내기로 합의했다.



2010년 1월 5일: 주재강 동문관에서 신년 떡국모임을 가졌다. 푸짐하게 차려주신 떡만두국을 먹으며 풍성한 한해를 기원했다. 힐러리 클링턴장관의 이화방문 dvd를 시청하고 임나영 동문을 따라 기를 잘 소통하게 해준다는 기공운동을 했다. 2010년 4월 6일: 심현숙 동문관에서 차기 회장단 선출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5월 총회에대한 세부사항 토론과 민속제전 봉사에 대한 토론을 했다

시카고 지회

조 경 남 회장 (조소 68)



이화를 위하여 일하시는 아름다우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소식을 보냅니다.

1. 대선배님 모시기 행사를 봄 가을 1년에 두번 갖습니다. 55년 이전 졸업하신 대선배님들을 모시고 대양장에서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고 정성이 담긴 선물도 전해 드립니다. 옛날의 엘리트 선배님들은 학창시절로 돌아가 반가와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화소식과 사랑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2. 2009년 9월 13일 일요일 Glenview 공원에서 50명의 동문이 참석하여 야유회를 갖고 초가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즐거운 선후배의 만남시간을 가졌습니다. 라디오와 신문을 통해 소식을 듣고 찾아온 새 이화인도 환영하며 교가를 부르고 이화 사위님들의 가족애창으로 가을 노천 음악회의 분위기였습니다.
3. 정기 이사임원회를 봄 가을 1년에 두번 갖고 주요 안건들을 의논 결정합니다. 지난 모임은 Glenview의 Wildfire에서 모임을 갖고 생일을 맞는 동문들에게 생일 케익을 준비하여 축하해 드렸습니다. 또한 계속 북미주 통합동창회에 후원금을 보내기로 하고 파주 캠퍼스 후원도 논의 했습니다.
4. 시카고 동창회 '이화의 밤' 연례총회는 매년 5월 첫째 일요일 저녁에 개최합니다.

2010년 총회는 지난 5월2일 욕브룩 드루리 레인에서 갖었습니다. 100여명의 동문과 이화 사위님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이화여대 창립 124주년을 맞는 뜻깊은 '이화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2년간 헌신 봉사한 조경남 회장께 감사패 증정이 있었고, 차기 이사장에 구광자(가정 67) 동문을 인준하고, 구은서(간호 73) 동문이 신입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이어 이화 사위들의 합창, 노래와 춤, 게임 등 임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뉴욕 지회

유 덕 향 회장 (약학 71)

대 뉴욕지구 동창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가 3월15일 열렸다. 이보영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이사장에 장화인 동문(심리학 69), 회장에 유덕향 동문(약학 71), 부회장에 박문순 동문(사학 66), 장학위원장에 윤량주 동문(간호학 69), 장학위원에 이정화 동문(영문 70)이 추천되었고, 이사회에 이어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선출되었다. 최성남 전 회장의 개회기도로 시작된 정기총회는 이정화 회장이 선후배의 많은 도움과 격려 덕분에 2년의 회기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는 감사의 말씀과,



모교 학생들을 돕는 뉴욕 동창회 Scholarship에 \$5,000, 뉴욕 지역 장학금 II에 \$20,000을 예치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새 회장으로 선출된 유덕향 동문은 지난 46년간 많은 동문들의 헌신과 수고로 이어져 내려온 뉴욕동창회를 더욱 더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역모임과 동호모임을 통한 동문들의 유대관계에 힘을 쓰겠다는 인사말씀을 하였다. 새로 구성된 임원단이 소개되었고, Denver에서 있었던 동창회의 통합과정을 최성남 전 회장이 설명하였으며, 주기도문으로 정기총회를 폐회했다.

임원: 총무 박영숙(경영 86), 김경희(중등교육 73); 재무 김정인(경영 91), 서희정(정의 72); 서기 안 혜숙(사회생활 80), 김성혜(서양화 85); 홍보 주성남(불어교육 74), 신창희(교육 86); 편집 최영희(경영 88), 유진숙(정의 78); 친교 양은녀(동양화 95)

2월 18일 대 뉴욕지구 동창회 초대회장이시며, 주축 설립자이신 임길재 박사님(영문 33) 99세 생일 잔치를, Flushing에 있는 Long Island Care Center에서 많은 동문들과 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거동은 불편하시지만, 강한 정신력으로 아직도 모교 이화와 동창회 사랑을 엿볼 수 있었으며, 생일 잔치에 감사하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며 눈물까지 글썽거리셨다.

4월 15일 국제재단 40주년 기념 만찬이 Paramus에 있는 Ridge-wood Country Club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 만찬에서 Helen Kim Society (Leadership and Heritage)가 발족되었으며, 뉴욕 동창회는 Alice Appenzeller Award를 수상했다. 4월 17일 임원간담회가 점심식사 후 식사를 넉넉히 준비해 주신 유덕향 회장 댁에서 14명의 임원이 모인 가운데 있었다.



앞으로의 모임, 연례 만찬과 Las Vegas 총회에 관한 제반 의견 교환이 있었다. 5월 1일 올해부터 시작된 지역 모임의 첫 번째 Long Island/Queens 모임이 안혜숙(사회생활 80) 동문 댁에서 있었다. 동창회에 한번도 안 나온 동문들이 여러분이 계셔 동문끼리 친밀한 시간을 가지는 좋은 시간이었다. 5월 10일 정기 모임에서, 작년 11월 Denver에서 통합되었던 동창회의 Task Force Team의 member로, 4월 Las Vegas에서 meeting을 마치고 돌아온 최성남 전 회장의 설명이 있었고, 이에 대한 뉴욕 지회의 입장을 결정했다.

1. 뉴욕 지회는 한국의 총동창회의 회칙을 준수하며, 총동창회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한다. 총동창회 회칙 제7장 26조에 의거하여 통합된 동창회의 한국이름은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 연합이어야 한다.
2. 뉴욕 지회는 회비와 이사회비로 모교 재학생을 돕는 뉴욕 장학기금, 교포 학생들을 돕는 뉴욕 지역 장학기금과 각종 행사를 support하므로, 통합된 동창회에서 제의하고 있는 회비와 이사회비를 이중으로 낼 수가 없다. 일 년에 일정한 금액을 뉴욕 지회에서 통합된 동창회에 내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5월 28일 녹미회 (미술대학 동창모임) 13th Annual Exhibition이 5월 24일~6월6일까지 Manhattan Soho에 있는 Broome Street Gallery에서 열리는데, 14명의 동문들이 Painting, Sculpture, Mixed Media로 참여했다. Opening Reception에 임원진과 많은 동문들이 참여했다.

미시간 지회

박정란 (교심 85)



2009년 12월 5일에 웨라톤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미시간의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김매리(문과 피아노 28), 정영림(국문 62), 박혜숙(외국어 69) 동문들에 대한 소개 및 감사패 전달을 하였습니다. 김상연(간호 59) 동문으로부터 이화 과주 분교 계획을 보고 받았고 차승순(기약 70) 동문으로부터는 이화 장학기금 조성 및 국제재단 보고를 받았습니다.

2009년 11월에는 미시간 지회 회장으로 수고해주신 김찬주(사회사업 69) 동문의 이화에 대한 사랑과 봉사를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0년 5월에는 “시로”에서 이화 봄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초대손님으로 엄동화 박사님을 모시고 “잇음” - 축복일까? 저주일까? 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선후배간의 만남의 기쁨과 헤어짐의 아쉬움을 나누는 즐거운 이화의 날이었습니다.

오타와 지회

장소영 회장 (사복 75)



2010년 4월 24일 오타와 지회의 동문들은 여성 CEO심춘화님이 운영하는 그래픽 디자인 사무소인 CREATRIX를 방문, 견학하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

5월 14일 Unitarian교회에서 주최한 네팔의 불우한 여성들과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선 만찬 행사에 장소영 회장 가족이 참여하였고 회장은 아들 장복동군과 전통의상 패션쇼에 출연하여 기금 마련을 적극 후원 하였다.

5월 26일 한식당 코리아나에서 정기 총회를 개최하여 신입회장에 차정자(수학 67), 부회장에 이연숙(간호 72년 입학) 동문을 선출하였다.

밴쿠버 지회

정인순 회장 (건강교육 70)



일년에 5번 모임을 갖습니다.

Barnet Marine Park에서 피크닉을 갖고 김현정 동문의 게임지도, 최현숙 골프프로의 가족퍼팅 콘테스트, 지원희, 김혜준 남편께서 해주신 바베큐로 즐거운 시간을 갖었습니다.

강은실 동문덕에서 추석모임을 갖고 김자선 동문(Make-up Artist)의 강의와 선교부에서 준비해주신 비빔밥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Vancouver Golf Club에서 부부동반 참석, 김현정 동문의 사회로 연말 파티를 성황리에 가졌습니다. 구정모임으로 전은영 부회장 동문덕에서 떡만두국을 준비해 주셨고 약사/한의사이신 전은영 동문께서 건강관리법과 한방과 양약의 관계 등 많이 배웠습니다. 정기총회를 써리 서울관에서 동문회에서 마련한 식사와 이미진 동문의 투자방법, 경제전반에 대한 특강, 친구임원 교체와 전반적인 회의가 있었습니다.

봉사부에서 김현정, 손애경, 정인순 동문이 노인회 봉사로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하고, 선교부에서 한복대 회장과 15명의 동문이 한달에 한번씩 모임을 갖고 빅토리아 섬에 있는 이바울 선교사님을 5년째 돕고 있습니다. 부인은 이대 무용과 동문입니다. 한 회장님께서 세계 곳곳에 있는 이화동문 선교사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심사 부탁 하십니다. 골프부는 최현숙 동문께서 수고해주시고 작년부터 대학연맹 골프대회에 이대팀이 출전했습니다.

임원: 회장 정인순(건강교육70) 부회장 전은영(약학76) 총무 김현정(법학85) 서기 배윤향(정의85) 회계 이혜은(경영87)

토론토 지회

박선미 총무



동문회 활동 - 토론토지회는 지난 2009년에 총회, 햇불회, 야유회, 연말 모임을 가지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4회에 걸친 햇불회에서는 ‘유방 건강 증진 프로젝트’와 ‘결혼과 가족심리 상담가인 김영순씨를 모시고, ‘가족 관계와 Boundary’ 라는 유익한 강연도 가졌다. 5월



야유회에서는 56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G. Ross Lord Park 에서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연말모임이 11월 22일 The Jewel Banquet Center에서 126명의 이화 동문과 사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1부의 신입 회장 선거에서 현 27대 회장인 조미리 회장이 유임되었으며, 2부에서는 임원진들의 댄스 공연과 사위들의 합창, 그리고 다양한 게임 등 즐거운 여흥 시간을 가졌다. 그 밖에 특별 행사로 매주 한차례씩 동문골프 모임을 가졌으며, 지난 9월 10일에 개최된 제16회 대학별 골프대회에서는 총 7명의 동문들이 참가하여 여자부 우승 트로피를 받기도 했다. 특기할 만한 활동으로 이화 토론토 웹사이트 www.ewhatoronto.com가 새로 개설되어 동문들의 활발한 나눔의 장이 되었고, 새 주소록도 발간하여 모든 동문들에게 배부하였다. 또한 이화 여대 토론토 동창회기와 조기를 제작하여 동문회의 공식행사와 동문들의 경조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2010년 활동으로는 1월에 한 해의 계획을 위한 임원 모임을 가졌으며, 3월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각 동문들에게 총회 소식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리고 2월, 4월에 각각 햇빛회 모임을 가졌다. 5월에는 동문 야유회, 9, 10월에 햇빛회, 10월에 미주 연합 총회 참가, 그리고 11월에 연말 모임 및 2011년도 신입회장 선거가 계획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규 행사 외에 특별 행사로 2009년에 이어 매주 동문 골프 모임을 갖고 있으며, 9월 중에 동문들의 건강을 위해 유익한 의학(심장병 예방) 강연도 계획하고 있다.

임원활동 - 조미리 회장과 임원들은 매달 임원회를 갖고 한 해의 계획과 모임에 관한 준비,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의하였다. 지난 연말 파티에서는 임원들의 댄스 공연으로 파티의 분위기를 더욱 북돋았다. 2010년에도 연임된 조미리 회장을 중심으로 보다 활기찬 동문회가 되기 위해 격월로 임원회를 갖고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동문 동정 : 2009년 3월에는 이정자(조소 65) 동문의 '원로 예술인 초대전', 4월에는 정성덕(독문68) 동문이 부군이신 이광민님과 함께 부부 전시회를 가졌으며, 6월에는 송복희(약학68) 동문과 한명실(사생 70) 동문이 열린문자로 교회에서 복사 안수를 받으셨다. 2010년 2월에는 김배세(가정 34) 동문이 100세 생신을 맞이하시는 경사를 맞으셨으며, 4월에는 박유경(불문 84) 동문의 시문학 동인 '시, 6토론토'의 두 번째 동인지 '시간을 보여주마'의 출판기념회가 있었다. 그밖에 각 분야의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많은 동문들이 올 한 해에도 음악회, 전시회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골프의 여로 (旅路)

(팔순을 맞이하시는 선생님께 드리는 시)

내가, 골프를 친다는 것은,
오늘 하루의 큰 선물,

내 삶의 여로이여라.
능선을 넘어 계곡을 달리듯
숨 가쁘게 정자에 오르면
그윽한 평야가 저만치서 손짓하네.

샘물 같은 시간 위를 날아오르며
흘러가며 맺은 인연들
곰고 찬란하여라.

변퍽이는 섬광 속에
다소곳 고개 속이면
지나온 세월이 굽이굽이 요동치는데
하얀 골프공이 저만치서 웃고 있네.

골프를 친다는 것은,
오늘하루의 큰 축복, 내 생애의 노래이여라.
높고 낮게, 길고 짧게 이어지는 선을 속에 해는 저무는데
새벽잠 설치며 모여든 Citrus Hills 동네 벗님들 함께
팔순의 노래를 부르니 우리 모두 청춘이여라.



정 순 덕 (국문 61)
Central Florida

어느 선교사의 하루

이바울 & 송유순 (무용과 81학번)
CANADA 지회 선교사

기쁜 소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5월16일은 제가 57세되는 생일 이었습니다. 저희는 원주민들과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민교회에 충실한 자매 스만다가 아들 작과 그의 친구 저스틴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알콜 중독에 빠져있는 줄리아와 레나와 엔드리아를 초청하였습니다. 평소 이분들이 거듭나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이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싸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생일을 애기하며,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신중하게 말씀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영접할 분은 손을 들고 하였습니다. 4명이 손을 들었지요. 제가하는 기도를 따라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의 육적인 생일이지만, 원주민은 영적인 생일을 갖게된 일이지요.

할렐루야!

바로 기초 양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레나와 엔드리아 집을 방문하여 구원의 확신을 주는 요한일서5장 11,12절을 암송하라고 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성경공부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레나와 엔드리아 집에서 처음 성경공부를 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두분 모두가 성실하게 암송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분들에게 말씀의 힘이 있기 때문에 암송한 것이 당신들의 삶에 큰 힘이 될것이라고 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분들은 저의 가르침에 잘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어지는 양육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있는 스만다와 같은 이름을 가진 엔드리아가 지도자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줄리아와 작도 성경공부가 시작 되도록 영적으로 방해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에 뿌리를 내려 잘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부부가 스승보다는 아비와 유모의 마음으로 잘 양육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7월에 있을 여름 단기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합의 기쁨

'이화동창회가 누구에게나 쉽터가 되길 원합니다. 더더욱 그리운 식구들과 친구들을 떠나 오랜 세월 동안 미국 땅에서 외롭고 힘들 때 옛 동창과의 만남으로 위안 받는 동창회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샌프란시스코 지회 윤영신 (성악 87) 동창이 덴버총회에서 만난 한 선배에게 보낸 편지에서 통합의 기쁨을 노래한다.:

선배님, 벌써 만나볼지 일주일이 지나 그리움에 소식이 궁금합니다.
함께 했던 시간과 선배님들의 사랑이 너무 많이 그리웁습니다.
이번 우리 북미주 이회가 하나됨이 공통 보디는 기쁨이 크기에 그 시간 그곳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다시 뵈뵈까지 더욱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윤영신 (성악 87)

만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김학숙 동창

“눈과 태풍 속에서도 우뚝 서있는 빗마당 큰 나무들의 늠름한 모습을 보면서 지나온 제 인생의 태풍은 제게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며 인내의 훈련이었습니다. 모세가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서의 악독한 백성들의 반항과 불평이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김학숙 동창(불문) 62은 { “나의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23:10)} - 욥의 이 고백을 마음 속 깊이 늘 기억하며 또 다짐하며 이제까지 어렵지만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 온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다.

“누구 보다도 저를 더 잘 꿰뚫어 보시고, 아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항상 일어나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찌기 김동문은 과거 여러 해 동안 북미주 동창회 모임 마지막 주일 예배에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많은 동문들에게 감동과 격려를 주었고 그로인해 심금으로 부터의 간증을 서로 나누면서 눈시울을 뜨겁게 했던 은혜로우며 소중한 시간들을 많은 이화인들은 기억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1800년 후반에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 오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믿기 시작하신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 난 그녀는 모태 신앙인이었다. 천정 어머니도 기독교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거듭난 신자 이셨다. 그러나 그녀가 이화여중 3학년 때 예기치 않게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심으로 천진난만한 소녀의 맑은 마음에 먹구름이 가득차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녀의 삶에서 떠나간 외인이 되어 버렸다.

이화대학을 졸업한 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보려고 그는 미국에 왔고 열심히 공부하면 언젠가 행복해지겠지 하는 막연한 바람으로 뉴욕 시 콜럼비아 대학에서 교육학으로 석사과정을 밟게 되었다. 그때 칠리 공대생으로 장학금을 받아 이대학에서 화공과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될 현재의 남편(Jose Larrain)과 결혼하게 되었다. 슬하에 한 국가에서 고아 두명을 입양하여 잘 키우며 완벽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겠다는 꿈을 펴가기 시작했던 그녀는 이 모든 것들이 본인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 못했음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다고. 행복을 위해 발버둥 치는 자신의 모습이 어리석게만 보였고 행복이란 하나의 꿈일 뿐이라고 생각되자 삶의 의욕을 잃게 되었다. 차차 우울증에 빠지며 몸은 약해져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애기들을 키우는 보모까지 두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순간 모태 신앙인으로 마땅히 믿고 따라야 할 자신이 예수님을 33년간 모른채하며 세상적인 길만을 열심히 찾으며 살아 왔음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33년간 자신을 쫓아다니며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기다리셨던 주님을 생각하니 자신의 죄 - {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입니다.” (요한복음16:9)}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김 동문은 그칠줄 모르는 회개의 눈물과 콧물로 번번이된 그날 이후 삶의 가치와 동기, 살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참 진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좀더 알기 위해 바로 신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게 되었고 콜럼비아 침례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과정을 받고 현재 다시 Christian Education Ministry로 박사과정에 있는 김 동문은 2009년 가을에는 큰 딸과 함께 한국에 가서 한동대학에서 한 학기를 가르치며 모녀간의 뜻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세상에서는 마음의 행복을 잠깐 맛 볼 수는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율처럼 참혹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을 초월하는 참된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성령 받은 후(1983년)에야 깨달은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김 동창은 믿지않는 외국인 남편과 입양한 두 딸 Nancy와 Cathy를 키우며 부단히



던 어려운 문제들로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답을 풀어가게 되었다고 말해준다.

입양한 딸아이가 초등학교 시절 ‘Family Tree’와 ‘혈액형’ 숙제를 받아오던 날은 당황함과 마음 아픔으로 온 가족들이 대화없이 묵묵히 보낸 너무나도 고요한 밤이었다고. “왜 내가 버려졌는지? 나는 왜 나를 낳아준 엄마에게서 까지도 버림받은 존재로 태어나야만 했는지? 이게 내 죄 때문인가?”

등등 고민하고 우울해 하는 두 딸들을 달래며 “너희들은 [abandoned baby]가 아니라 [chosen baby]야. 너희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야. 엄마와 아빠는 너희들을 참 많이 사랑한다.” 그러나 이를 이해하기 보다 나이 어린 딸들은 두눈을 부릅뜨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biological mother를 찾아 가겠다고 떼쓰기도 했던 그때를 회고해 보며 그녀는 언젠가 자기들의 생모를 찾기 원한다면 도와줄 마음이라고 덧붙인다.

되돌아 보건데 아이들과의 지난 29년간의 삶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의 행동과 생각을 보게하는 귀한 경험이 되었다며 변함없는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달았다고 조용히 말해주었다.

자신은 잠시 이세상에서 주님의 딸들을 위한 문학선생임을 깊이 느끼며 하나님의 딸들을 하나님을 위해 잘 길러드리겠다는 회개와 헌신을 다짐하게 되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내 삶의 목표가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애들의 어려운 질문과 반항을 어떻게 참고 견딜 수 있었는지를 생각할 때 마다 그저 주님께 감사할 뿐이라고 고백한다.

“만약 내가 아이들 엄마로 헌신해 온 대신에 career를 갖고 계속 일을 해왔다면 내 삶이 어떠 했을 가?” 하고 가끔 생각해 본다는 김 동문은 지금 가진것도 자랑할 아무것도 없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환경을 초월해서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Joy와 Peace가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 준다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 큰딸은 한국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기독교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둘째 딸은 의사가 되어 요즘 밤을 새며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올 여름에 할 아프리카 의료선교 준



비로 바쁘다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던 남편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함께 믿음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밝은 얼굴로 귀띔해 주며 예수님과 제자를 특히 바울의 발자취를 추적하는 뜻있는 성지순례도 다녀왔다고 알려주었다.

이화의 귀한 딸들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돌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김학숙 동창은 늘 자기 전에 또 아침마다 외우며 묵상하며 자신을 뒤 돌아보는 삶의 지침이된 성구를 들려 주었다. {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 20)}



늦깎이

김아자 (기독교학 63) 상담카운슬러 뽀쿠버 지회

늦깎이 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 보았다 첫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떤일을 시작한 사람. 둘째, 남보다 늦게 사리를 깨치는 일 또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좋아졌다. 환경이나, 의학적인 부분은 물론, 음식도 풍부하여 평균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다. 옛날에는 60세, 70세 만 살어도 희갑이니 고히니 하며 잔치벌리며 축하하곤 했다. 요즘은 60세가 되어도 환갑잔치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인생은 60부터” 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수명도 길어졌고, 그만큼 짧게 산다는 것이다. 캐나다도 은퇴할 65세도 자동으로 은퇴하던 것이 당연치였는데, 이제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2008년도에 법이 바뀌어 졌다. 평균 수명도 연장되어 여자 나이 84세라니 은퇴를 하고도 20년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겁이 나기도 한다. 언젠가 “노년은 사십부터 준비를 하라” 는 책을 읽었는데, 그때 내 나이는 50을 훌쩍 넘겼을때, 내 인생이 이것도 저것도 늦깎이 더니만 노년준비도 늦깎이가 되고 말았다.

아이들을 어느정도 길러 놓은 다음 늦게 라도 영양사가 될려고 공부를 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상담자로 입사하게 되어 다시 카운슬러 공부를 해야 했다. 카운슬러가 직업이어서 그런지 내 스스로도 사람관계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되었고, 상담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돕고 이해 하기전에 내 성격이 먼저 고쳐진 것 같다. 워낙 긍정적이긴 했지만 낙천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성격에 신앙의 힘이 생길수록 나 자신이 변화되어 가게 되었다. 이렇게 나는 도전적이고 열심히 봉사와 사랑하는 일에 즐거움을 느낄 틈에 지나간 세월도 유수와 같았지만, 남은 세월도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한 직장도 시간이 지나면서 연륜이 쌓이게 되어 일년에 6주 휴가를 받게 되는 세월을 직장에서 일할 때 나는 2주는 가족과 지내고 4주는 비록 제한된 시간이지만은 했지만 타향에서의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한국에서 시간을 보냈었다. 은퇴하던 해엔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일이 지연되는 바람에 12월 끝자락까지 있게 되었다. 한국에 가면 보통 서너명의 여고나 대학 동창생들을 한 번씩 만나거나 소식을 듣는 정도여서, 다른 정보들을 얻기가 쉽지 않은데 가끔씩 까마득하게 잊혀졌던 여고동창들이 모인다는 소식을 들곤 했다.

동창회 송년잔치를 위해 일부터 갈 수없는 나 인데 마침 잡실 롯데호텔에서 한다고 한국에 온 김에 꼭 참석하라는 친구의 신신 당부였다. 난 열일을 제쳐놓고 가기로 했다. 지금은 그런대로 서울지리에 눈을 뗐지만 몇년 전 만해도 서울의 동서 남북을 가릴만한 방향감각이 없어서 어디를 찾아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동네이름도 물론 골목길도 알아볼 수 없게 바꾸어? 있기 때문에 길을 나선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었다. 내가 집을 나설때면 이것도 조심하고 저것도 조심하라고 출발점부터 목적지까지 일일이 적어 주었을 정도로 캐나다티가 졸졸나 어리둥절해 하는 모습이 나로써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다.

적어준대로 목적지에 도착하여, 졸업합수가 꽂아 있는 테이블에 앉아 있으니 한사람 한 사람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어머 너 아무게지? 나야 나, 얼굴은 알겠는데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월이 흘렀다. 서로 미안한 마음이 앞섰지만, “너 내 뒤에 앉았었지 우리 반이었지, 고바우, 진바보 아냐? 땀 통반이 있지” 하고 선생님들의 이름 보다는 별명이 더 기억이 나는 우리는 여고 시절로 돌아가 반가움에 서로 열사얹고 방방 뛰었다. 잊고 살다가도 가끔씩 생각나는 친구, 보고 싶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다. 여고 동창이 이렇게 좋은 것을 세상 느꼈다.

올 여름 시청앞 어느 호텔식당 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 인터넷에서 가는 길을 찾아서 더듬더듬 길을 찾아 가는데 내 나이 또래인 여인이 카메라와 장비를 어깨에 메고 멋지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환상적이었다. 호텔에 도착하니 친구가 보이지 않아 두리번 거리는데 전화가와 돌아보니 내 뒤에 서 있는 여인이 전화를 하고 있었것이 아닌가 서로 모르고 찾고 있었다. 그 멋진 여인이 바로 여고때 친구였다. 그녀는 늘 꽃에 관심이 많아 원예를 전공을 하였다. 전공과는 달리 늦게 취미로 배운 사진기술이 지금은 전문적인 사진처럼 실력이 생겼고 공부를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 재봉에도 손재주가 있어서 소품을 만들기도 하고 개성에 맞게 겨울 코트를 비롯하여 갖가지 옷을 만들어 입는 디자이너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과 부러움을 담아 그녀를 바라보며 감탄을 한다. 그녀는 열심히 주어진 삶을 즐기며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해 주고 있다. 순이는 얼른 생각이 나는 친구인데 이름이 희야 란다. 그 당시 일사후퇴 회복후 우리집에 피아노가 없어서 지금 생각하면 중학교 일학년 인지 이학년에 방과후 대강당 한구석에 아주 오래된 그랜드 피아노로 바이엘을 연습을 했었다. 그때 순이는 선수 훈련생으로 탁구랑 기계체조를 신나게 했었다. 난 운동을 잘하는 그녀를 은근히 부러워 했었던 기억이 난다. 이북이 고향인 순이는 이름이 희야 라고 바꾸어 지는 바람에 대학을 가기위해 초등학교에서 다시 고등학교까지 검정고시를 보았었다. 요즘은 컴퓨터도 전문가처럼 잘 다루는데 새해에는 방송대학 문화교양학과에 입학할 한다고 한다. 여고 동창 홈페이지가 있다는 호기심과 반가움에 밤을 지새우면서 한국, 미국, 일본, 스웨덴, 그리고 캐나다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고향을 바라보는 나이에 잊은 친구들이 컴퓨터에 달인들이 되고, 젊어서 하지 못한 공부 그리고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을 볼때 모두 뿌듯하고 자랑스롭다.

캐나다에 온지 강산이 서너번 바뀌어지는 세월에 할머니가 되었고, 늦깎이로 공부해 주 정부산하 이민자들을 위해 일하는 기관에서 주 정부 월급을 받고 한인 담당자로 있었다, 정착 프로그램, 여성 프로그램,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가정폭력 여성 카운슬러로는 근 20년을 은퇴할때까지 일했다. 이민 혹은 이곳에 첫발을 디딘 한국인들 95%가 우리 기관에 찾아와 정착을 하는 제반 사항에 도움과 정보를 주는 민원 창구 역할을 하고 법적인 것 그리고 사회적인 것을 교육을 하게되 나는 많은 한국인을 만나게 되었다. 직업상의 맡은일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 정부에서 해 마다 연수를 많이 시킨다. 변경된 여러가지 법이나 제반사항들, 교양과목 같이 캐나다에서 살아가는 법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일을 할수가 없다. 연말이면 그 해에 받아야할 연수를 상사에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혼자 애 둘을 데리고 힘들어 하는 여인이 후배인줄도 모르고 만났다. 성악을 공부한 그녀는 몇 음절만 들어도 손이 피아노 건반을 왔다 갔다 하는 은사로 교회와 양노원에 봉사하면서 영어학교에 충실히 다니고 있다. 전공을 살려 이민 2세들을 위해 한글학교에서 교장을 몇년 봉사하다가 이사장을 지내고 지금은 이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있다. 이렇게 여러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나는 은퇴후 더 바쁜 생활인 것 같다. 봄,가을 학기 노인 대학에 봉사하고 여가지기 동우회에 동창회 활동을 하며 다양한 일에서 봉역과 봉사활동을 하고있다. 어머니께서는 “ 받은 만큼 나도 돌려 주어야 한다” 고 늘 말씀하셨다. 내가 받은 만큼 나도 돌려 주려고 애쓴다. 어쨌든이 찾아와 하는 말씀이 “손자놈이 이제 11학년인데 노랑 머리를 집에 데리고와 내 앞에서 키스를 하니, 세상이 어떻게 될야고 말세인가 보다” 고 탄탄을 하신다. 우리가 자라던 시절과는 엄청 다른 세상이 되니 계속 배워야 젊은이들을 특히 내 아이들과 대화가 되고 이해 할 수 있고 세상이 돌아가는 수준에 맞출 수 있어야 한다. 요즘은 젊은이들은 우리시대보다 자유롭게 사랑을 하고 사는 모습을 보고 연륜이 많으신 분들은 살아온 삶에 사랑이 없었다고 후회한다.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나이가 아날까 즉 젊게 사는데는 기쁨의 은행이라는 작은노트를 만들어 행복의 기억들을 적어 놓았다가 펼쳐본다면 그 기쁨은 이자까지 불어나 두배 이상으로 다가오는 느낌이라고 한다. 주철환 방송인은 젊게 사는 삶의 방법은 인생은 드라마(Drama)라 한다. D (Dream)꿈 을 가지고 R (Romance)은 열심히 사랑하고, A (Action)은 행동으로 옮기는것, M (Mystery) 은 의심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A (Adventure) 모험보다는 모험을 하는 생활. 그리고 삼불 즉 불신, 불만, 불만을 편집하고, 삼사 즉 감사, 찬사, 봉사를 편성해야 한다고 한다. 사랑한다 와 좋아한다는 차이점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이성으로서의 어떤 스킨쉽이 아니라 그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될 수 있는 한 힘이 되어 주고 배려해주는 것이란다. 좋아한다는 것은 고양이와 쥐를 좋아하는 것은 잡아 먹으라고 좋아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사랑하면 잡아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 좋아합니다” 라는 말 보다는 누구에게도 “사랑 합니다” 라고 한다고 한다. 남은 삶을 영원의 스킨쉽으로 살기를 노력해야 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잘 만져주는 것이란다. 늙음은 순리인 것, 어쩔수 없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재산을 쌓기위해 사는 삶이 아니니 편안하게 인생의 나이를 80으로 잡는다면 40년은 새로운 맛을 찾아 떠나는 탐험였고 나머지 40년은 지금껏 경험한 맛을 기리고 추억되는 여행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병상을 지키며

강행자 (국문 65, 위싱턴 지회)

작년 7월 중순경 저의 남편이 차고 천정에 벌어진 틈새를 조이고 내려오면서 제 키만한 사다리과 같이 넘어지면서 머리 뒤통수를 세멘트 바닥에 찍었죠. 그때 당시는 괜찮았지만 안심이 안되어 일주가 지난 다음 CT Scan 찍어 보니 피도 나오지 않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여 안심하며, 방심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방심할 일이 아니고 또 찍어 봐야 했어요.

45일 지난 무렵 걸음걸이가 이상하더니 이를 후에는 차에서 내려오지 못해 의사한테 전화 했더니 빨리 Community Hospital Emergency로 가라하여 그 곳에서 CT Scan 찍은 결과 피가 고여 body control이 안된다고 여겨서는 뇌 수술 못한다면서 즉시 helicopter로 Washington hospital center로 옮겼습니다. 다음날 5시간에 걸려 수술은 완벽하게 잘됐지만 저의 남편 경우는 혈소판 (Platelet) 수치가 낮아 피가 멈추지를 않아 3일동안 깨어나지 못했을 때 수술의 의식없이 누워있으면 폐렴이 올 수 있는데 Mr.Chung은 간이 나쁘기 때문에 100% 죽을 수 있다며 내일 가족회의 하자면서 멀리있는 아들을 부르라고 했을 때 많이 감동했습니다. 의사 말인즉 피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 없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기적 밖에는 없구나 원망스런 눈으로 머리에서 받아내는 피를 쳐다보고 있으니 간호사가 남편 손을 꼭 쥐어 주라고 했을 때 학교 다닐적 읽었던 'Touch' 가 생각났습니다.

두 손으로 아빠 손을 붙들고 하나님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과정 다 지나고 여기까지 동행 해 주셨잖아요.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니다. 간곡한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흐르는 눈물은 감당할 수가 없었고 답답하고 답답하여 아빠 몸을 흔들며 눈썹 떠봐요. 했더니 눈을 번쩍 떠서 손 들어요 발 움직여요 하면 모두 따라서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고개가 절로 숙여지며 낮에 병실을 다니다가 김 목사님, 차 목사님의 간곡한 기도 덕분에이라 생각했죠. 이 소식을 들은 의사가 우리보다 더 좋아 하면서 Mr Chung은 자기를 가장 슬프게 하더니 지금은 가장 기쁘게 한다면서 오히려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 병원은 침대 900개 간호사 5000명 대규모의 병원인데 저는 여기에 26년 살면서 듣지도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아빠를 가장 좋은 의사, 병원으로 인도해 주셨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5일만에 피는 멈추었고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 되면서 저는 매일 중환자실 (ICU)로 출근하며 환자 곁에서 12시간이상 지키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웠으며 중환자 옆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는 노후후가 생겼죠. 음식과 호흡, 대 소변, 팔에는 Center Line 온몸에 호스와 기계로 의존하는 생활이 20일동안 ICU에 있었는데 중간에 간호사가 의사 허락없이 환자가 움직이니가 의사 허락없이 저 한테는 Pain Medication이라고 했지만 물건을 놓아 5일동안 coma 상태가 됐을 때 생사가 또 반반이었습니니다.

그때 수술의사는 Labor Day연후로 New York에 있어 전화 통화를 했는데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는 환자인데 화내며 몹시 당황한 목소리로 미안하게 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저는 환자를 돌보면서 먹약, 주사 모든 것을 물었는데 내 보는 앞에서 주사 주는 것 본 후, 30분간 점심 먹으로 자리를 비웠는데 이런 황당한 일이 생겨 이때부터는 점심을 집에서 싸와 몰래 거기서 먹었습니다.

다음날 수술의사가 돌아와 모든 검사가 시작됐고 1급 간호사가 배치되는 비상이 걸렸고 여자 보다 남자 간호사가 사망감이 강해 보였습니다. 옆에서 저를 지켜주는 딸에게 이런 실수는 아빠 한 사람으로 족하며 더이상 다른 사람이 당해서는 안될 것 같아 의사와 사무장한테 말하라고 했지요. 그 이후로 이 간호사는 보이지 않았고 아빠는 차차 좋아지기 시작 했지만 몸은 더욱 쇠약해졌고 퇴원은 10일 정도 더 늦어질 것을 생각하니 그 간호원이 매일 미워 죽겠는거예요. 그런데 김목사님 용서의 설교가 생각나 딸한테 나 그 간호원 용서해 줄거야 했더니 엄마 잘 생각 하셨어요. 우리 용서 해줍니다. 아빠 고통을 덜어 줄려고 한 것인데 우리 기도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미움과 분노로 괴로웠던 마음이 용서를 하고나니 훌쩍바 해졌다. 하나님은 저에게 난생 처음 용서의 체험을 똑똑히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저희를 아는 목사님, 중보기도팀, 모든 분들의 합심기도의 힘이 컸었다고 보며 본인이 살겠다는 의욕, 의지, 신념, 인내력이 남달리 강하다 보니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침대에 오래 누워 있다보니 폐렴, 황달이 왔는데 항생제 복용하면서 가래



때시간 빠고, Oxygen 수치가 낮아 때시간 Deep Breath를 Plastic용기 열변을 불고 들이 쉬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안 할려고 하면 산소가 모자라면 알죠 하면 따라서 하기때문에 간호사는 제가 자기네 할일을 반 이상 해주니 저를 좋아하며 간호사 해본 경험있냐고 물었지만 모두 이곳에서 배웠죠. 날마다 좋아졌다. 한번은 여의사가 와서 수술자리에 꼽았던 Staple 빼는데 한쪽 빼고는 손을 씻고 갈려고하여 다른 한쪽은 내일 빼느냐고 했더니 당황하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어쩔줄을 몰라 하더군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병원인데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간호사들의 실수를 볼때마다 너무 씁쓸했습니다. 18일만에 ICU에서 모든 검사후 IMC로 옮기면

서 끼웠던 호스가 줄어들고 산소 호흡기도 코로 바뀌고 했는데 뇌에 피는 나지 않지만 고였던 피는 차차 흡수되는 관계로 헛소리를 가꿈하고 기억이 돌아오지않아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 줄 모르며 때로는 사람도 잘 알아보지 못했지만 저는 이 병원 의사를 믿고 좋아질 것을 확신 했습니다. 병원 음식제가 해간 음식 잘 먹고하니 나뻐던 수치가 올라가 National Rehabilitation Hospital로 옮겼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고 앉고 서는법, 잡고 걷는법, 다양하게 훈련시킨후, 공동 Therapy받는 넓은 홀에서 Physical Therapy, Occupational Therapy, Speech Therapy, 오전 9 ~ 4.30분까지 힘든 과정 겪고나니 날마다 좋아져 저녁 먹은후 공기 나쁜 병실보다는 가을 하늘이 보이는 이 홀에 와서 낮에 배웠던 운동을 복습했더니 9월 말에는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었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이지요. 아빠를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쳐도 우리의 가치를 변함없이 인정해 주신다고 하였고, 은혜를 받을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고 했어요. 콘웰 교수가 말했듯이 인간의 행복이나 최고의 좋은 것은 결코 산너머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생활속에 있다고 말 했고,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을 부르는 일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고집부리지 말고 남의 말도 들을 줄 알아야 해요. 모처럼 지난날을 회상하며 왜 내가 그때 사다리에 올라 갔을가 후회했을때 일단 보편 당장 해치워야 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못하면 내일, 내일 못하면 모래... 느긋한 자세로 남은 여생을 살아요. 스페인 속담에 "급히 서두른자가 무덤에 먼저 간다." (Don't Hurry, Don't Rush, Life is Short.) 라고 했어요. 보고도 못 본척 인생살이가 달라져야해요.

이곳에서 22일 더 있다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집에 오자, "아! 천국이 따로 없다. 여기가 천국이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너무 좋아 했었습니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 진다고 퇴원해서 3일째 되는 밤2시경 화장실에서 한번 넘어지고 15일쯤 밤 3시경 혼자 아래층 내려가서 넘어졌지만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24시간 따라다니는 무면허 Doctor, Nurse, Therapist를 해야하며 신경이 항상 곤두 서있어 잠이 많이 부족했지만 평소 건강하여 잘 견뎌 냈습니다. 아빠의 건강도 날로 날로 좋아져 한달후 N. R. H Eventually검진 마치고 다음 W. H. Center에서 CT Scan 찍은후 거기서 바로 Emergency Room으로 옮겼다. 이유인 즉 피가 뇌에 많이 고여 있다고 했을때 집에서 두번 넘어졌다고 하니 그때 피가 나오지 않았나 몇일 지켜봐야 한다며 모든 검사가 시작됐는데 다행히 피는 멈추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피가 멈추지 않았다면 저희 아빠는 재수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생 가능성이 0 % 이었습니니다.

하나님은 아빠를 또한번 지켜 주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거라 확신하며 내가 확신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생각하며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다시 IMC에서 13일 입원했다 퇴원한후 혹시 넘어질까봐 예방차원으로 돌이서 왼쪽 오른쪽 손목을 묶고 자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폭 잠수가 있고 혼자 내려가 넘어질 염려도 없고 일거양득 이었습니다. 의사가 지금 고여있는 피는 시간이 가면 뇌에서 흡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전, 심한 운동 금지령이 내려왔다. 일년이 지난 지금도 골절장 근처도 못가 땀달아 저까지 못가죠. 때로는 답답하고 답답할때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심호흡을 하고 있노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않고 그저 주기만 하지요. 우리의 인생은 어느 누구도 대신 아파주지도 살아주지도 않습니다. 저는 지금 힘들지만 더 좋은 보람된 시간이 오기 위한 과정이라고 마음먹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를 수 없이 반복합니다. 모든 역경을 이기고 보니 행복할 날만 남았습니다.

에텐동산의 유적지를 찾아서

강 화 영 (김명자 약학 64, 부군)

지난 3월, 4일간의 라스베가스 관광 일정 가운데 ‘불의 계곡(Vally of Fire)’이라는 곳을 관광하였다. 나는 이곳에서, You believe or not, 에텐동산의 유적지(?)를 발견하였다.

이 공원(The Valley of Fire State Park)은 Las Vegas에서 북동쪽 35마일에 위치하여 버스로 한 시간정도 걸린다. 화성암과 부식된 붉은 토사 등으로 덮여진 산악지대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바위 구조물로 장관(裝觀)을 이루고 있는데 특히 산악지대가 붉은 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해 뜰 무렵과 질 무렵에는 태양 빛에 반사되어 마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에 ‘불의 계곡’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이 광경을 본 나는, 성경 창세기 3:22절이 뇌(腦)리를 스쳐갔다.



Sequoia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즉,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텐동산에서 추방하고 동산 동쪽에 그릅천사를 배치하여 사방에 화염검을 세워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 나는 생각하였다. 혹시 이곳이 에텐동산의 유적지인가? 성경에 나오는 그 동산의 모양새와 위치를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또 창세기 2:8-10절에 의하면 “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텐에 동산을 창설

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텐에서 발원(發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런데 여기에 네 강은 첫째는 <비손> 강으로 순금과 진귀한 향료와 보석이 있는 ‘하월라’를 굽이쳐 흘렀다. 둘째는 <기혼> 강이며 ‘구스’ 땅을 가로질러 흘렀고 셋째는 <디그리스> 강으로 ‘앗시리아’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는 <유프라테스> 강이었다. <註: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 동산의 위치에 관해서는 신학자와 고고학자 간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아직도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지 못했다. 이곳에서 흘러나온 셋째 강과 넷째 강은 ‘페류사’ 만에서 홍해로 흘러 들어간 강줄기이기 때문에 중동의 남 메소포타미아의 모처에 있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창조과학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인류 사회의 창조는 5, 6천년에 불과하며 노아 방주와 연관된 대홍수가 지구 전체를 덮어버린 크나큰 사건이었고 Las Vegas의 동쪽에 있는 ‘아리조나’ 주의 ‘그랜드 캐년’ (Grand Canyon)이 대홍수로 인한 지각 변동으로 생긴 대협곡이라 가정한다면 에텐동산도 이 대홍수 때 네바다주로 밀려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네바다주의 어원도 이상하지 않은가 관광 안내원의 만담 속에서 얻은 힌트(?)지만, 한국 관광객이 바다가 4개 있다고 해서 찾아왔더니 바다는 간곳없고 어찌 사막 밖에 없냐고 불평(?)하였다고 한다. 어떻게 되었든 네 강들 가운데 두강은 아직도 중동에 남아있지만 첫째 강 비손강과 둘째 강 기혼강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Bristolcone Pine Tree

나는 이 첫째 강 비손강을 Las Vegas의 동쪽에 있는 후버(Hoover)뎀 근처에서 찾을 수 있었다. 후버뎀은 두 개의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데 미드호수와 모하부호수가 그것이다. 그 중 남동쪽에 있는 모하부호수가 에텐동산의 첫째 강 비손강의 원천이 아닌가 생각한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비손강은 순금과 진귀한 보석이 있는 하월라 땅을 굽이쳐 흘렀다고 한다. 모하부호

수의 하류에 오트만 금광촌이 있는데 이 곳은 1931년 까지 금을 채굴하기 위하여 모인 인구가 15,000명이었고 약 2백만 온스의 금을 생산했다고 한다. 이 금광은 1942년 폐광되었다.

그리고 에텐동산을 적시고 흐른 4강의 원천인 동산은 Las Vegas에서 동쪽 8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대추나무밭’ 일명 China Ranch에서 발견하였다(?). 이곳은 70년전 중국인이 발견하였다고 하여 China Ranch라고 부쳐졌지만 지금은 미국인 한 가정의 대추나무밭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숨은 오아시스(Hidden Oasis)’라고도 하는데 사막과 불모지 속에 해발보다 낮은 분지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볼 수 없다. 이곳에는 신기하게도 개울물이 흘러 대추나무를 무성하게 만들고 있다. 이 나무들은 종려나무(Palm Tree) 같이 생겼는데 대추가 엄청나게 많이 열매 맺고 있다. 성경에는 종려나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텐동산에 아름다운 나무를 많이 심으시고 맛있는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그 아름다운 나무가 바로 이 대추나무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나무들은 40종이 넘고 대추씨가 있고 열매가 당분이 풍부하다. Las Vegas 일대의 지층이 대 홍수로 밀려 왔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증거는 China Ranch에 <Tecopa>라는 온천장이다. 이곳 일대는 아지고 지층이 물렁물렁해서 땅속에서 뜨거운 물이 많이 나온다. 이 온천장 근처에는 자수정과 벽옥(Jasper)등의 보석이 나오는 광산이 많다. 이곳에서 운영되는 온천장에는 남녀가 벌고 벗고 물속에 들어가게 되어있다. 아담과 하와도 동산에서 벌고 벗고 있었다는 생각이 난다.



끝으로 하나님이 에텐동산에 심어 두었던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 원죄를 지어 이 동산에서 쫓겨 날 때, 선악나무는 없애 버렸고,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하여 천사를 배치하였고 화염검을 세워서 보호하였다고 한다. 그러면 이 생명나무는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이 생명나무를 두 곳에서 발견(?)하였다. 하나는 California와 Nevada 경계에 있는 Sequia National Park에 있는 ‘Sequia’ 나무 또는 일명 큰 나무들이 생명나무(?)의 후손이 아닌가 생각한다. 현대 생물학자는 이 큰나무 즉 Sequia나무는 2,500년 내지 3,000년 묵었고 아직도 죽지않고 자라고 있다고 한다.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나무의 하나라고 한다. 또 다른 하나는 Las Vegas의 북쪽에 위치한 Great Basin National Park에 있는 ‘장수소나무’다. 이 소나무는 4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직도 살아 있다고 한다. 만일 창조과학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구생성의 측정치를 사용한다면 Sequia 나무나 장수소나무의 연령이, 하나님이 인간 사회를 창조하신 6천년의 년대와 일치하지 않을까? 다시 생각하면 Las Vegas가 위치한 곳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라고 하는데 에텐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에 즉 인류의 고향인 이 동산이 그리워 수없이 들어가려고 노력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곳을 금지구역으로 만드셨기에 모든 시도는 죽음으로 끝났을 것이다. 그래서 ‘죽음의 계곡’ (?)으로 이름이 지어졌지 않은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동산에 돌아가는 것이 실패한 우리 선조들은 그 에텐동산의 문턱에 그와 비슷한 동산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Las Vegas라고 생각된다. 위에 서술한 것들은 소설과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 후학들이 한번 깊이 연구하여 불만만 과제가 아닌가하여 서술하였다.

만일 Valley Fire가 진정 <에텐동산>의 유적지라면 미국의 역사는 다시 써야 할 것이 아닌가?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김정화 (조소 82)
워싱턴 지회 부회장

를 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금속이라는 재질에 담아 표현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뜨거운 불길로 금속을 다루는 시간은 저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니다. 밤새 기다렸습니다. 지금 이런 순간이 오기를...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준비 했습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
밤새 기다리다가 피어난 새벽의 수줍은 꽃마냥, 축스럽고 겸연쩍은 마음으로 준비 하였습니다.
그동안은 나에게 주어진 역할의 무게에
때로는 힘겨워 했고 때로는 나라의 사람을 잊고 지냈습니다.
이제 가끔은 내자신에게 칭찬을 해주면서, 당신이 나를 만드신 그 마음을 느껴가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것 부터 느끼고 감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만드신 그 이유를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모습으로, 말로, 그리고 나에게 주신 талан트로 당신의 이유

편집후기

많은 원고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글 모두 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북텍사스 지회와 아틀란타 지회 소식은 회장님들의 요청으로 실지를 못했음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도 동창님들의 글, 활동소식 그리고 지회소식 등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Bryce Canyon Tour (Oct. 27~28, 2010) 선착순 56명 제한



제 1일	11:00	호텔 출발
	14:00	중식(도시락)
	16:00	Bryce Canyon sunset 관광
	18:00	Bryce Canyon 출발
제 2일	19:00	Kanab도착, 석식후 호텔 Check in (현지식)
	05:30	기상, 출발
	06:30	Bryce Canyon sunrise 관광
	07:30	sunrise point 에서 계곡밑까지 산책
	09:00	조식(현지식)
	10:00	출발
비용	15:00	라스베가스 도착, 중식 후 해산(한식)
	20인까지	1인당 \$240
	30인까지	1인당 \$210
	40인까지	1인당 \$200
*2인 1실 기준으로 오늘 현재 가격임		

<<위의 비용에 불포함된그 외 비용 사항>>

• 공원 입장료 (26인 이상 \$150, 이하 \$60)기사 및 가이드 tip

* 초원관광 신동준 사장

lv8282@gmail.com 702-630-8282 각자 예약 요망.

Korean-Folktales.com

Korean Folktales 한국 전래동화

by Dongwol Kim Roberson



Korean Folktales are simple & timeless stories of ordinary people,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se stories are an important part of the Korean culture & heritage. Now, you can read & enjoy five of the most well-known tales, written in English with colorful & traditionally-rendered illustrations. Collect all of these important books to share with friends & family.

- The Curse of the Three-Year Hill
- Korean Cinderella: Congjui & Potjui
- Two Korean Brothers: Hungboo & Nolboo
- Golden Ax & Silver Ax
- The Blue Frogs

Purchase your copies at: glpiworld.com

Find us on the web at:
www.korean-folktales.com

COLLECT ALL FIVE!

COME SEE US AT THE
REGISTRATION TABLE

Ginseng3

Korean BBQ

Las Vegas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내



결혼식,
단체모임,
각종 세미나, 파티
200석 연회장
한식, 일식, 중식

3535 Las Vegas Blvd. 5th Fl.
Las Vegas, NV 89109



IMPERIAL PALACE

702.567.8282 702.794.3313

대장금 [1호점]

702.638.2222

3943 Spring Mountain Rd.
Las Vegas, NV 89102

진생 [2호점]

702.891.8403

3765 S. Las Vegas Blvd,
Las Vegas, NV 89109

명문대 진학의 필수과정 스탠포드 여름캠프

SUMMER at STANFORD

An Intensive Academic Camp

스탠포드 교육대학원 출신의 장용희 원장(사회학 '74)이 30년 경험의 노하우와 한국식 교육을 미국 교육과정에 접목시킨 인텐시브 학습캠프입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 스탠포드 대학 캠퍼스 기숙사에서 머물며, 스탠포드 출신 현직교사 및 재학생들로 구성된 최고의 강사진과 함께 하는 집중학습캠프를 통해 동기유발, 자신감, 그리고 성취감을 경험하십시오.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학력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도를 합니다.

Junior Excel Camp (6th-8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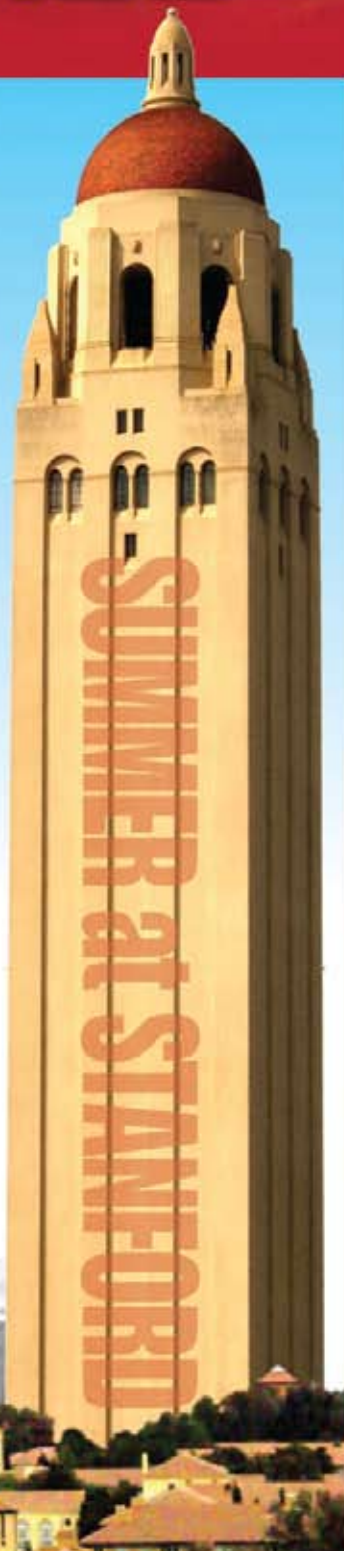
- Daily Summer Reading을 통한 어휘실력과 독해력 향상
- Daily Book Report를 통한 사고력, 표현력, 문장력 연마
- PSAT/NMSQT 준비과정을 동시에 하며 영어/수학 기초 완성
- AMC, Math Olympiads 등 수학경시대회 준비도 아울러 달성

College Prep Camp (9th-12th)

- 9학년: 고교 4년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중요한 여름방학입니다.
- 10학년: 영어/수학 기초 점검하고 AP Class 선행학습 및 시험대비
- 11학년: AP 과목 선행학습 및 SAT/ACT 준비를 철저히 할 시기
- 12학년: 마지막 SAT/ACT 기회 및 대학지원 개인 에세이 작성

SAT/ACT BootCamp (11th-12th)

- SAT? ACT? 고민 말고 둘다!
- SAT: 오랜 집중력, 추리력, 분석력 등 문제해결 능력 측정
- ACT: 과학포함한 고교과정 전반에 걸친 학업능력테스트
-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고, 오답노트 철저히 복습하는 습관을
- SAT II 과목시험을 SAT I 보다 먼저 치르는 작전도 효과적



www.GlobalEduCamp.com

Tel: 1-877-738-2010 / Email: cj@globaleducamp.com

주최: 글로벌에듀캠프 / 후원: 글로벌아카데미, 스탠포드 교육대학원

김일련 부동산은 오랜 경험과 성실을 바탕으로 안정된 경험을 살려 귀하의 귀중한 부동산을 알려 드립니다.

• KIMILLION REALTY •

라스베가스
Las Vegas

김일련 부동산

고객만족도 1위를 향한 다짐.

실적이 말해주는 No.1 Selling Agent

김일련 부동산을 만나시면 최고의 선택이 보장됩니다.

Toll Free 1.888.678.0777



주거용



상업용



상업임대



토지매매



Owner / Broker 김 일 련

ik7344@yahoo.com

Tel. 702.768.0341 Fax. 702.478.5973

3481 E. Sunset Rd. Suite 100, Las Vegas, NV 89120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3100 Hawksdale Drive, Las Vegas, NV 89134 - 8992
President: Hee Ryun Lee Kim, M.D.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OAK BROOK, IL
Permit #120

Change Service Requested

CELEBRATING ONE EWHA

Ewha 2010 연례 총회가 10월 24일(일)-27일(수) 4일간 Las Vegas, Nevada에서 개최됩니다. Show 관람, Golf Outing, Bryce Canyon 관광도 있어 오니 참석하실 분들은 가능한 한 빨리 Hotel예약도 하시고 참가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otel예약: Monte Carlo resort and Casino *각자 예약 요망
3770 S. Las Vegas Blvd., Las Vegas, NV 89108
☎ (1-888-529-4828)
Online 예약 (마감일 9월 24일): www.tinyurl.com/ewha10
Group Offer Code: xewha10 (호텔 예약시 말씀 하세요.)
Room Rate: Deluxe Room: \$59.00+tax (2인 1실)
Monaco Room: \$99.00 +tax (2인 1실)

참가자 신청서

참가자 이름	한글		
	영어		
졸업년도	졸업학과	동창회 지회명	
주소	Street		
	City	State/Zip	
전화	Home	Cell	
E-mail			
동반자 이름	한글		
	영어		
등록비	\$20.00/person	\$	
총회참가비	\$200.00/person	\$	
10/26(Tue)	Golf @Legacy	\$100.00/person	남/여 \$
10/27(Wed)	Golf	\$100.00/person	남/여 \$
	Golf Club	지참()	불지참()
참가비총액	\$		

참가회비를 개인수표로 써서 본 참가 신청서와 함께 9월24일 까지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Payable to - Ewha Womans Univ. Alumnae. Assn.
보내실 곳 Mrs. Hyekyung Jung
272 Violet Note Street
Henderson, NV 89074

Program Schedule

10월 24일(일) 11:00am Registration
2:00pm-4:00pm 임원 이사회
3:00pm-6:00pm Reception (간단한 Snack제공)
7:00pm "O" Show관람/ "Le Reve" Show관람 or 자유시간

10월 25일(월) 7:00am 아침식사
9:00am-11:00am 총회
11:30am-2:00pm 총장과 Banquet (총회와 같은장소)
3:00pm Red Rock 관광
6:00pm Dinner (한식)
7:30pm City Night Tour

10월 26일(화) 7:00am 아침식사
8:00am *Golf Outing (Legacy Country Club)
8:30am-11:30am i)강의: 이은상 작가: 'Grace Notes'
ii) 강의: 김홍자 교수: Art세계로의 초대-작품소개
iii) 강의: 이혜경 동문: 베일속의 이조왕조 말년역사
12:30am Hoover Dam관광 (점심제공)
6:30pm Annual Grand Banquet

10월 27일(수) 7:00am 아침식사
8:30am 예배 및 동창 간담회/ 임원교체
11:00am i) 1박2일 Bryce Canyon관광출발(10월27일-28일)
ii) *Golf Outing

교통편안내: 1) from 공항: by Taxi (3.34 Mile, 7min)
2) from South West: I-15N to exit Tropicana turn right
Las Vegas Blvd. turn left to Monte Carlo St. turn right
3) from North: I-15 to exit Frank Sinatra

Show 관람: 1) "O" Show: Bellagio Hotel
10/24 (Sun) 7:30 pm (NO shows on Monday & Tuesday)
Ticket 예약: www.bellagio.com click "O" cirque du soleil
2) Le Reve: Wynn Hotel
10/24 (Sun) & 10/26 (Mon), 7:00 pm & 9:30 pm
Ticket예약: www.wynnhotel.com
*각자 예약 요망, 당일에는 살 수 없음이 상례임.

Golf Outing (10/26-27):비용: \$200.00 (2x18holes) Lunch포함
골프클럽을 렌트하실 경우도 골프화와 장갑 지참해 주십시오.
Golf에 Join하실 분은
권영애 골프부장 (814-449-9010)께 연락.
*각자 9월15일까지 연락해 주십시오.

Bryce Canyon 관광 (10/27-28): 선착순 56명
초원 관광 (신동춘 702-630-8282 lv8282@gmail.com)
*각자 예약 요망 (참조: Bryce Canyon 관광안내)

문의 전화: 이회련 회장: 702-233-2441 박혜경 준비위원장: 702-456-9823/301-2113
김정희 총무: 702-341-8909 권영애 골프부장: 814-449-9010